



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01년 5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78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본회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 교수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崔松和·俞泰烈·尹正一·玉先花교수, 가운데줄 尹桂燮·李鍾昕·俞平根교수, 뒷줄 朴世熙·沈昌求·尹義俊교수, 6~7면 참조)

스승의 날에 만난 참스승... 행복하세요!



최근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의 급팽창,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유학이민 등 교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8백만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엔 붉은 등이 켜진지 오래다. 학교 교사들의 체벌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학부모들이 학원 강사에게는 공부 안하는 자식을 때려달라고 간청한다니 말이다.

체벌 반대, 촌지 근절에서부터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교원정년 단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사롭게 넘겨버린 사안들이 이제 또다른 문제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촌지 근절」을 위해 학교 앞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플래카드를 아무 생각 없이 내걸었고, 「스승의 날」엔 학부모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학교 문을 걸어 잠갔다.

수요자 중심 교육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교

육이란 학생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교육으로 돼버리기 일췌다.

모교인 서울대의 교단도 피폐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교수 1명에 학생 157명」의 현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서울대 사범대 물리학과는 정년 1년을 남겨둔 노교수가 혼자서 학부생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157명을 가르

교단을 세워야 나라가 선다

치면서 학과장 업무까지 맡아오다가 끝내 과로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총 5명의 교수 가운데 3명은 「두뇌한국(BK21)사업」 때문에 자연대 물리학과로 이적하고 1명은 안식년을 맞아 해외로 나갔다고 한다. 노교수 한 사람이 7과목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교수와 학생간에

인성적인 교류가 과연 이뤄지겠는가.

여타 대학도 교단의 풍토가 삭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신학기만 되면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교수와 학생간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오늘날 대학교육도 이런 면에서는 황무지나 다름없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의 자존심을 살려내야 한다.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겠지만 교원의 권위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도 결국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의 붕괴를 막고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투자와 함께 전국민이 교육현장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자녀 교육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모든 시민이 교사가 되고 모든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의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衡)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青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金有信,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영국인들은 남의 나라 인명과 지명을 자기네 식으로 고쳐 쓰고 자기네 식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웬만한 인명과 지명에 그 자취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이 소위 「영어제국 주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갠지스 강가의 Varanasi 에는 Banaras Hindu University 가 있는데, 앞의 것은 뒤의 지명을 영국인이 오기한 것으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인도 정부가 봄베이 대신 뭉바이라 불러달라 요청했을까.

영국인에 뒤질세라 프랑스인들도 같은 일을 했다. 가령 베트남의 나짱이 Natrang으로 표기된 결과 나트랑이 되어 버렸다.

우리라고 외래어 표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탈리아와 미국에서는 「피짜」라 발음되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피자」로 통용되고 있다. BBC방송에 서조차 오스트랄리아라 발음하는데, 우리는 힘들게 오스트레일리아를 고집하고 있다. 그 나라 교수에게 물어 보았더니 두 발음이 다 통용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San Jose를 미국인들은 산 호세라 발음하는데 왜 우리에게

는 알바니라 발음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York가 요크라면 New York은 뉴욕이 아니라 뉴요크가 되어야 한다. 그 근처의 Hudson강은 허드슨이 아니라 현지인들은 헛슨에 가깝게 발음한다.

장음을 예외 없이 표기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불, 리만, 코시가 각각 논리학자 Boole, 기하학자 Riemann, 해석학자 Cauchy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공부를 한참 해야 한다. 니가타가 일본의 니이가타임을 쉽게 알 수 있을까? T. I. T.가 있는 오오-오까야마는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일본인들은 이들을 각각 Niigata와 Oo-Okayama로 표기한다.

중국의 표준 발음을 따라 인명과 지명의 표기를 바꾼 것도 문제이다. 타이페이 (타이베이)의 창카이썬 국제공항이 장제스를 기념하여 불인 이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까? 도리어 베이징 대학은 아직도 Peking University라는 이름을 국제적으로 사용한다.

폴란드인은 호텔을 호텔루라고 한다. 이는 외래어 표기가 아니라 자기네 말로 바꾼 것이다. 참고로 교과용 지도에 나와 있는 폴란드 지명 중

에는 현지 발음과 비슷하지도 않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 더러 있다.

거대담론이 횡행하는 시대에 이런 찜찜한 얘기만을 늘어놓게 되어 죄송스러우나, 이제라도 몇 개 표기는 원 고장의 발음에 맞추어 고쳤으면 좋겠다. 옹고집을 버리고 남의 것을 존중하는 것은 언제나 훌륭한 태도이다.

(본보 논설위원)

외래어 표기의 몇 가지 의문



朴世熙
모교 명예교수

건강을 지킵시다5면
羅潤英치과의원장
추억의 창5면
李炳國 前동아계약 전무
동문을 찾아서8면
한국디지털위성방송 康賢斗사장

해양정책 최고과정동창회 南正明회장
화제의 동문9면
한겨레신문 權台仙민권사회1부장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南惠云사무총장
지부순례10면
달라스 지부

기·과 순례10면
영어영문학과 동창회
밖에서 본 서울대인16면
金貞菊여사(金星銖치과의원장 부인)
SNUA OPINION LEADER18면
서울대 약리학교실 徐維憲교수

동문칼럼

공존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영겁의 자연질서는 균형적 조화로 생성되었으니, 인간은 이 엄숙한 명령에 따라 자연과 공존할지언정, 지배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끼리도 경쟁할지언정, 그 누구의 삶도 배제하지 말고 상생해야 할 것이다. 다른 생명이 내 것의 뿌리이고, 그 존속이 영원한 질서이기 때문이다. 남의 생명을 양식으로 삼았으니, 내게 허용된 생명은 내 것만이 아닌 것이다. 생명은 시간들로 쪼개지고 생명은 근로들로 전환된다. 시간과 근로를 태워서 얻은 것은 내 것만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자연에서 얻었고, 자연을 먹고 살며, 그 자연을 숨쉬고 마시며, 그 자연을 즐기며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은 너무 먹어서
건강을 해치면서도,
너무 가져 진정한 행복을
잃으면서도, 이웃과는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내 몸이 자연의 일부인 것과 같이 내 이웃도 자연인 것이다. 이웃이 파괴되면 나도 파괴된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된 생명임으로 같은 몸(同體), 같은 뿌리(同根)인 것이다. 내 뿌리는 저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이웃 또한 내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같은 뿌리, 같은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일컬어 「天人地同根」이라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연은 한정되어 있다. 자연이 줄 수 있는 식량은 한정되어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양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도, 살 수 있는 수명도 한정되어 주어졌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끊임없이 탐욕하는 존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먹고도 더 먹으려 하고, 마셨지만 더 마시려 하며,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 한다. 심지어 행복하게 잘 살고도 더 무한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다. 너무 먹어서 건강을 해치면서도, 너무 가져 진정한 행복을 잃으면서도, 이웃과는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에게 허용된 것보다 더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해치고, 심지어 전쟁까지 선택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한정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순간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남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쌀의 생명, 물고기의 생명, 소·돼지의 생명, 심지어 몸에 유익한 작은 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른 자연의 희생을 나의 식량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내게 허용된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누리는 자연의 생명을 취한 덕분인 것이다. 내게 허용된 시간은 생명의 부스러기이다. 내가 시간을 써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남의 희생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해서 얻은 것도 오로지 내 것 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나와 한 몸, 같은 뿌리인 이웃과 나누어 공존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경쟁과 공존의 법칙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는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그 결과 각 나라는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향상된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의 과실을 얻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배제된 이들에게 기초보장을 포함하는 社會安全網을 제공해야 하며, 그 속에서 보호받고 자기기능을 향상시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鄭敬培

(62년 師大卒)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본회는 20만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매월 동창회보를 9만4천2백부(국내판 8만7천2백부·미주판 7천부)를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문 여러분의 근무처 및 거주지 이전으로 매월 1천여 부의 동창회보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보 제작 및 발송비용의 손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 동문 여러분의 주소 파악을 위해 추적하는 시간 절감은 물론 한 통의 전화 및 엽서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변경된 연락처를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주요목차



한일병원 崔暉英신경정신과 과장

부인·두 딸·처남·동서 등 9명이 동문

여자는 미대, 남자는 공대 출신이 대부분



· 뒷줄 좌로부터 네 번째 崔暉英·여섯 번째 李德柱·한 명 건너 徐紀英·許鎭동문. 앞줄 좌로부터 세 번째 李珉柱·두 명 건너 黃玉彩·李蕙柱동문.

「미대 출신 여성은 공대 출신 남성과 궁합이 맞는다?」

얼핏 보면 신문이나 나을법한, 약간은 난센스가 가미된 기사의 제목처럼 들리겠지만 이러한 법칙이 통하는(?) 가족이 있으니 바로 崔暉英(78년 醫大卒·한일병원 신경정신과 과장)동문 가족이다.

특히 부인 李珉柱(80년 美大卒)동문의 여자 형제는 미술학도로 공대 출신 남편을 두었고, 반대로 남자 형제는 공대 출신으로 미술을 전공한 부인을 두었다.

학창시절 崔동문과 형제처럼 지냈던 李德柱(77년 工大卒)동문은 다른 아닌 부인 李珉柱동문과 남매사이.

비록 崔동문은 의대 출신이지만, 李珉柱동문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공대생이었던 李德柱동문의 영향이

컸었다고.

崔동문이 부인 李珉柱동문을 처음 만난 것은 재학 당시 모교 스키부 동아리에서이다. 전국체전 스키경기에서 수상할 정도로 스키실력이 대단했던 李동문은 스키부 동아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활발한 성격에 다재다능한 李珉柱동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만난지 두 달만에 약혼 및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개인전 15회 및 2백여 회 이상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미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李珉柱동문은 현재 세계문화 및 남북문화교류의 새 활로를 찾기 위한 문화 컨설팅 회사 「3HnL」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李德柱동문은 소음공해를 혁신적으로 최소화한 소음방지용 팬(fan)을 발

명하는 등 일반 사람이라면 다소 상상하기 힘든 발명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발명가자 과학기술원 교수로, 그의 부인 黃玉彩(77년 美大卒)동문 역시 독특한 미적 감각을 살려 실내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처형 李蕙柱(73년 美大卒)·徐紀英(74년 工大卒)동문 내외 역시 「美女工男(?)」 커플로 각각 중앙대와 성균관대에서 교수부부로 활동중이며, 아쉽게도(?) 막내 처제 李紅柱씨는 영어와 불어를 전공, 현재 배재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남편 許鎭(80년 工大卒)동문은 한전기술(주) 부장으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崔동문의 두 자녀 역시 모교 새내기들로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인생은 올림픽게임과 같으니, 처음부터 1등을 바라지 말고, 학력보다는 실력, 실력보다는 먼저 인간성을 중요시 여기라』고 당부한다는 崔동문은 두 자녀들이 모교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부보다는 사람 됨됨이에 대해 늘상 강조했을 뿐, 딸들 모두 서울대는 장학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들어간 것 같다』고 겸손을 보였다.

부인 李珉柱동문의 활발한 성격을 닮아서인지 장녀 崔瑞希(사회대 지리학과 2년)양은 학과회장으로 동문서주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수학적 재능을 물려받은 차녀 崔瑞炫(자연대 기초과학계 1년)양은 고교시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연 2회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다부진 여걸.

한편 가족 가운데 공대와 미대 동문이 각각 3명씩 포진하고 있어 유일한 의대 출신인 崔暉英동문이 자칫 가족동창회 모임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지만, 崔동문은 뛰어난 의술로 생과 死의 기로에 선 병원 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신적 치료사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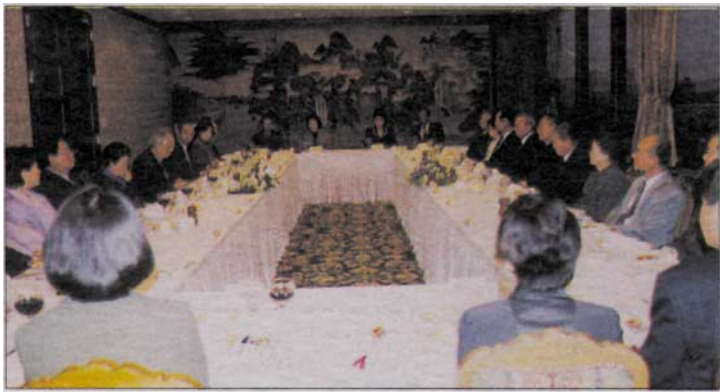
지난 4월 16일 한일병원 신경정신과 과장으로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崔동문이 20여 년간 술한 좌절과 행복을 맛보았던 곳은 다른 아닌 암 전문병원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원자력병원이다.

특히 원자력병원에서 崔동문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암 말기환자 및 일반환자들이 병에 대한 공포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리치료 및 정신집중 프로그램을 개발해 환자들에게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심어주며 이들을 극진히 돌보는데 인생을 투자해왔다.

한편 崔동문은 『동문이 가족 중에 많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모교 출신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인지 종종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곤 한다』며 『다행히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있어, 항상 베푸는 일념과 「역시 서울대생이라 다르구나」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表)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역대 수상자 축하 모임



본회는 지난 4월 13일 신라호텔 23층 오키드룸에서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역대 수상자를 초청,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회 수상자인 상산학원 洪性大이사장, 모교 任志淳교수, 2회 수상자인 태성고무화학 鄭哲圭회장, 삼보컴퓨터 李龍兌회장, 3회 수상자인 공대동창회 林光洙회장, SK그룹 孫吉丞회장, 한국간연구재단 金丁龍이사장이 참석했다.

또한 본회 金在淳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炯均논설위원,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李基俊총장, 閔相基대학원장, 朴吾銑기획실장, 朴泰鎬대외교류처장, 공대 李長茂학장, 의대 李鍾郁학장 등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이들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본회·관악회 기금관리운영위

을 하반기 기금 운영방향 수립

본회는 지난 4월 20일 한국언론재단 석류실에서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인 文昌星·金善九·張楠鎬등문과 본회 洪性大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 李平浩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관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각 금융권별 문제점과 2001년도 하반기 금융시장 동향 및 금리 변동 상황, 저금리 지속상태에서의

기금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실무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본회의 기금 운영 방향을 수립했다.

본회는 작년 6월부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동문들이 납부한 연회비와 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재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실무책임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기금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다.

모교 체육부에 1천만원 지원

야구부·미식축구부 학생 격려

본회는 지난 4월 26일 모교 체육지원 기금으로 체육부에 1천만원을 지급했다.

모교 종합체육관 체육부장실에서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은 申仁湜체육부장(사진 左)에게 야구부와 미식축구부 지원금으로 각각 5백만원을 전달했다.

본회는 지난 99년부터 매년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모교 체육부를 지원해왔다.

순수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야구부는 지난 4월 막을 내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서 선전을 펼쳤으나 영남대 등에 패배하여 통산 전적 152전 152패의 기록을 남겼다.

단 한번의 값진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릴 각오를



다지고 있는 20명의 야구부원. 그들이 야구부에 쏟고 있는 열정과 투지가 변하지 않는 한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본다.

야구부는 현재 전국종합야구 선수권대회(5월 7~17일), 제35회 대통령기 전국대학 야구대회(6월 8~18일), 제56회 전국대

학야구선수권대회(7월 14~23일),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전(9월 5~20일) 등 4개 대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1993년 팀명을 「GREEN TERRORS」로 공식화한 미식축구부는 94년부터 매년 서울지역 대회 결승에 올랐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 서울지역 우승을 한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특히 97년 전국대회 4강에 진출했으며, 2000년 전한국 미식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현재 25명의 부원들은 앞으로 열릴 부산대와의 교류전(5월 19일)과 서울지역대회(10월 초), 전국대회(11월 초) 출전을 위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맹연습중이다.



좌로부터 두 번째 李世中·申禹植·孫一根등문, 李夏江여사, 金在淳·李奭熙·金哲洙등문.

한국일보 孫一根상임고문

「나는 告發者…」 출판기념회

지난 4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한국일보 孫一根(51년 法大入·본회 상임부회장)상임고문이 「나는 告發者이고 싶었다-고뇌에 찬 체험 속의 에세이 신문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本會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저자 약력 소개, 가족 및 내빈 소개, 본회 金在淳회장·환경운동연합 李世中공동대표·대한언론인회 申禹植회장 축사, 저자 인사, 본회 李奭熙부회장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孫동문은 1955년 주간 「의회보」와 「서울타임스」 편집장을 거쳐 한국일보에 입사, 百想 張基榮선생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도서관장, 조사부장, 기사심사부장, 방송뉴스부장, 논설위원, 동경지사장, 출판국장, 통일문제연구소장, 백상기념관장, 재단법인 백상재단 이사 겸 사무총장, 한국일보 종합출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원대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운영위원, 대한언론인회 이사, 서울대 법대동창회 부회장과 전국순씨화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칼럼 및 단편집인 「독백의 여운」 등이 있으며, 가족으로는 李夏江여사와 3남3녀를 두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林光洙·韓斗鎭·徐廷和·李奭熙·李吉女·金讚淑·孫京植·洪性大·卞柱仙·金學俊부회장, 모교 李鉉求부총장, 閔相基대학원장, 한국일보 張在國회장, 환경운동연합 李世中공동대표, 대한언론인회 申禹植회장 등 4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朴明潤특지장학회

석·박사과정 3명에게 연구비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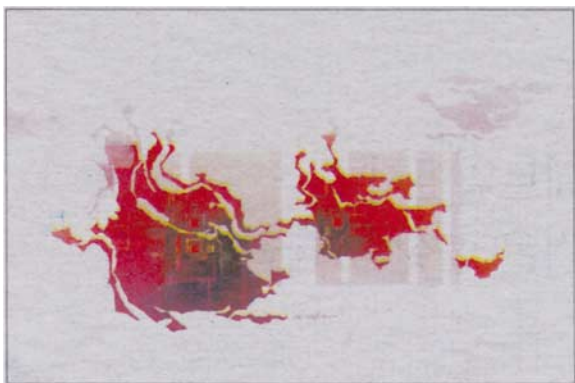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76년 保大院卒·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4월 27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01학년도 1학기 「朴明潤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박동문은 최상준(박사과정)·동문에게 1백만원, 김홍수(석사과정)·유승진(석사과정) 동문에게 각각 5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번 연구비 수여식은 세 번째로 박동문이 지난 99년 12월 18일 출연한 5천만원을 본회에서 관리, 그 동안 발생한 이자로 모교 보건대학원 석·박사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자 중 우수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동문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變)

미술작품

金明浩作



「무제」, Acrylic on paper, 78×55cm, 2000.

〈작가약력〉

- △ 59년 모교 미대 응용미술과 졸업
- △ 66~80년 한국디자인협회회원
- △ 74~2001년 개인전 7회
- △ 86년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초대 한국교수 3인전
- △ 93년 한국그래픽디자인의 오늘과 그 단면전
- △ 99~2000년 한국 Visual Designer 협의회전
- △ 현재 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 교수, 한국비주얼디자인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고문

건강을 지킴시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비결

치아의 건강을 유아기, 성장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유아기에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때이므로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젖을 빠는 애들의 경우에는 직접 엄마가 거즈나 깨끗한 천 등으로 입안의 치아는 물론 잇몸까지도 가볍게 닦아주면 효과적이다.

성장기는 대체로 만 6세부터 18세까지로 보는데, 전반 12세 정도까지는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치기가 빠지기 시작하는, 즉 이갈이를 하는 때이므로 치과의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치과 의사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기본적으로 잠들기 전에는 가급적 간식을 먹지 않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으며, 꼭 이를 닦고 자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반 18세까지는 부모의 관심이 자식의 진학문제로 쏠리면서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시기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면 이 때 해야 한다. 청·장년기에는 그 동안 치아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별 문제가 없는 사람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곧 황혼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치아도 당연히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 그렇게 단단하여 돌이라도 씹을 것 같던 치아가 법랑질이 파모돼 씹는 힘이 약해지고, 잇몸이 위축되어 뿌리 부분이 들어 나기 시작하면서 시큰거림이 생겨 민감해지는 것이다.



羅潤英(66년 齒大卒)
라윤영치과의원장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리하게 단단한 것을 씹는 일, 필요이상으로 오랫동안 질긴 것을 씹는 일, 탄산 음료 등을 지나치게 마시는 일 등은 피해야 할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우식증이 진행되어, 이상을 느낄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잇몸병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관리를 게을리 한 탓이다.

노년기에는 살아남은 치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틀니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 큰 복이겠으나 어쩔 수 없이 틀니 신세를 지게 되었다면 사용방법을 잘 지킴으로써 남은 여생 동안 식욕을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치아가 드문드문 남아 있으면 치경부의 청결이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회전식 전동칫솔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남은 치아는 깨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항상 치과 의사의 자문에 의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윤영치과의원 : 734-1673)

추억의窓

약대생의 자존심과 자랑인 「오색 연막탄」
실습시간 많아 고3 수험생 시간표 방불

李炳國(59년 藥大卒)前동아제약 전무

을지로 6가 메디컬센터 옆 방산시장 변두리에 자그마한 붉은 색 벽돌 「ㄱ」자 2층 건물이 우리 학교였다. 모퉁이에 있는 정문을 들어서면 언제나 시큼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겼고, 저녁때에는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늦게까지 항상 줄을 서 있었다.

더러는 책을 읽거나 혼자 뭘 외우고 혹은 앞 뒤 사람과 토론을 하며,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마다 그 날 있었던 실습에 대해 한 사람씩 구술시험을 치렀고, 만에 하나 잘못하면 집에 가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사실 우리 실습이 많았다. 시간표는 고3 수험생과 같이 딱 차 있어 답답할 정도였다.

4학년이 되어 연건동 의대로 약리 실습을 가는 날이면 해외 유학이라도 가는 듯 날아갈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 가운데 우리 나중에 대단한 약을 만들어 보리라는 꿈을 키웠고, 그래서인지 결국 난 평생 공장에서 약만 만들었다.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들이 한마당에 모여 하나의 학교 학생임을 확인하는 큰 행사가 있

었다.

바로 종합체육대회 날이다. 그 날은 서울운동장(지금의 동대문운동장)에 구름같이 모여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같은 축제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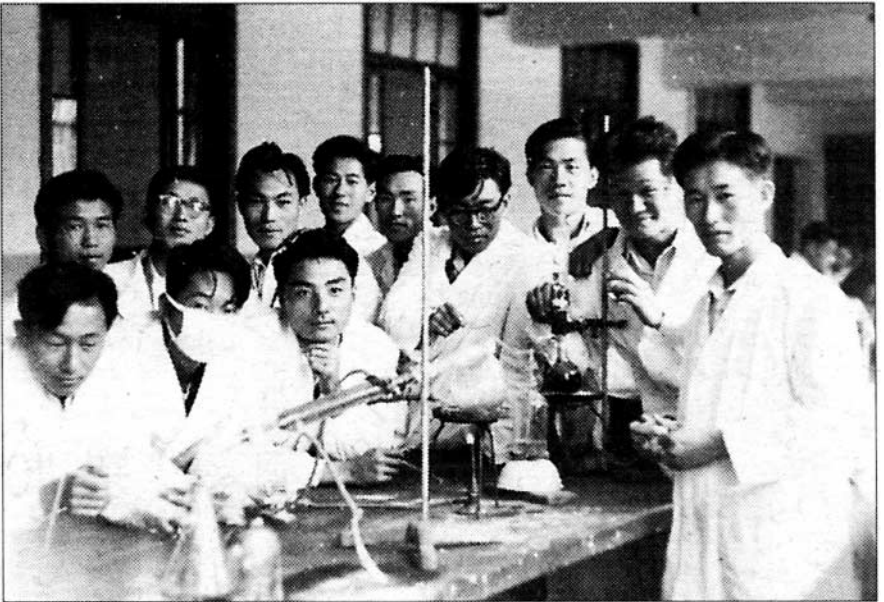
입장식이 끝나고 경기가 시작될 무렵, 우리 약대생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서너 명의 학생이 뛰어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서 「탕탕」하며 오색 연막탄을 터뜨리는 장관을 펼치는 것이 그것이었다.

초록, 자주, 노랑, 붉은 색의 연막이 힘차게 솟아올라 가을 하늘을 높이 아름답게 물들이면 관중 모두가 그걸 바라보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필자는 당시 그게 어떤 화학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했고, 그걸 만들 실습시간을 기다렸다. 화학병리학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뻔 그런 희한한(?) 과목이 있었다.

선배나 교수님들도 별로 가르쳐 주지 않았고, 4학년이 되어 선택과목으로 그 과목을 수강했지만 앞서 언급했던 내용은 배우질 못했다.

지금도 난 아직 그걸 모른다.



우로부터 두 번째 필자.

우리 약대생 모두에게 꿈을 심어 주었고, 화합과 응지를 가르쳐 주며 운동회에서의 자존심과 자랑이었던 그 오색 구름의 정체를, 졸업 후 40여 년이 된 지금도 잘 모르겠다.

스승의 날 기념 모교 교수 간담회

師弟間 존경과 신뢰가 大學의 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본보에서는 모교 교수를 초청해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모교의 발전 방향 등을 비롯해 진정한 스승의 의미와 사제지간의 바람직한 방향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본보 朴世熙(59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논설위원

참 석 자

- 俞泰烈(55년 音大卒) 음대 성악과 명예교수
- 李種昕(61년 齒大卒) 치대 구강생리학교실 교수
- 崔松和(63년 法大卒) 법대 법학부 교수
- 俞平根(65년 文理大卒) 인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 尹正一(66년 師大卒) 사대 교육학과 교수
- 尹桂燮(68년 商大卒)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 沈昌求(71년 藥大卒) 약대 제약학과 교수
- 玉先花(72년 家政大卒) 생활과학대 소비자동학부 교수
- 尹義堧(83년 工大卒) 공대 재료공학부 교수

사 회: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요즈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俞泰烈: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 자유와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퇴임하고 보니 여러 가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崔松和: 올해가 전임강사 발령을 받은 지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모교가 발전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할 수 있었던 것에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며, 앞으로도 후학양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尹正一: 99년부터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내 학교 교육의 올바른 정립과 위상을 바로 잡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사 회: 한 나라의 교육 수준과 환경 등이 그 나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즈음 국내 교육 현실을 보면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실이 붕괴되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尹正一: 올해 스승의 날은 우리 교육 역사상 가장 서글픈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권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의 교육 위기는 과거와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교육 전문가들은 현 상태를 국가적인 위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원들의 자부심과 긍지, 사명감이 산산이 부숴지고 학교의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교원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몇몇 학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붕괴 현상입니다.

尹桂燮: 스승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년 동안에 하루라도 은사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배움의 자세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중국의 「문화혁명」에 비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 교수들이 힘을 결집해 초·중등 학교를 살리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도 머지않아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尹義堧: 대학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하나의 가치관의 준거 내지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대가 쇠퇴되고 있는 것을 느

가지는 교수들의 연구 발표에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을 정부가 너무 강조하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尹義堧: 예전에는 선배 교수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고, 조언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그 안에서 멋과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것이 서열화, 점수

및 서울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모교의 위기 상황과 해결 방안 등에 관해 말씀해주신다면.

俞平根: 최근 「反서울대 정서」, 「反지성주의」, 「교육평준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정치적 외압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또한 모교가 너무 발전 일변도로만 치달려 온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며, 이제는 대학이 지녀야 할 윤리 혹은 도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보아집니다.

여러 사람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實事求是」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것인데, 저 또한 실용주의 자체를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용주의 노선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이며, 특히 실용주의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아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崔松和교수께서 「외압이 올 때마다 대학이 변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저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인간의 정신 세계라 보고 있습니다. 즉 인간, 자연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환경과 인간의 어울림을 생각하는 인간관을 대학이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玉先花: 과거 총장을 직선제로 뽑게 된 시점부터 모교 교수님들이 학교에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초·중등 교육의 붕괴에 대학 책임 커 교수 자격은 최종 학위로 판단해야

지만 지금에 와서는 단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 교육의 붕괴는 매우 커다란 문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하며, 대학도 이에 따른 반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玉先花: 초·중등 교육의 붕괴에 대해 대학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이 방향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학은 국내 초·중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尹正一: 현 정부의 교육 정책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다방면의 학습을 고루 받아 대학에 진학했지만, 현 입시정책은 한 가지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서는 대학이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지,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 사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멀어지고 있음을 몸소 느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교육 붕괴라는 막다른 길로 다다르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李種昕: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질서의식입니다. 올바른 질서의식을 배우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그만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느끼는 것인데 과거의 학생에 비해 지금의 학생들은 어려움이란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대학내 벤처창업을 너무 조장하여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기초과학 없는 기술이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기술만을 가지고 벤처창업을 한다는 것은 砂上樓閣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제로 되다 보니 저부터도 후배 교수들을 돌보아줄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적인 점수보다는 질적인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沈昌求: 요사이 사회가 경쟁을 너무 부추기는 분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도 경쟁 일변도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경쟁력을 반감시키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과 기술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SCI로 인해 사실상 학생들에게 예전과 같은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사 회: 모교 교수협의회에서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교수 84%가 국내 대학



俞泰烈



李種昕



崔松和



俞平根



尹正一



朴世熙



沈昌求



玉先花



尹義堧



尹桂燮

있는데요. 특히 총장으로 출마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학교 운영과 발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역시 다른 대학에 비해 학문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을 맡게 되면 현실에 타협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서울대인들조차 모교가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된 지위로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모교의 존재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리라 봅니다.

沈昌求: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에 관하여 최근 모교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문은 응용학문의 기본 바탕이 되는 학문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나라의 교육은 조선시대 이래 지나치게 실용성을 배척해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날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도 주식매매나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은 이와같은 교육의 비실용성에 기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俞平根: 응용학문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초학문들이 토양을 만들어 서로 相生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이와 함께 상생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은 대학 자체 내에서 학문공동체로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俞泰烈: 예술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순수음악은 예전에 비해 크게 도외시되고 있으며, 실용음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균형이 필요할 때입니다.

李種昕: 예전에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도 느낀 것이지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서울대 교수들 대부분이 모교 출신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순혈주의」라는 비난에 덧붙여, 타고 출신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尹正一: 대학 교수의 자격은 박사과정과 박사학위이므로 최종 학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박사학위 취득의 최종 대학원을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지 않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 회: 여러분들 모두 교단에서 그 동안 후학양성에 주력하며, 모교와 역사를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수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일이나 보람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桂燮: 과거를 회상하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

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존경과 신뢰 또한 여전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교수와 학생 간의 사랑과 존경이며, 오늘날 대학이 존재할 수 있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도 또한 이런 점이 아직 내면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힘입니다.

尹義堧: 예전의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비전을 많이 제시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니 과연 내가 학생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교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제자를 훌륭히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 교수로서 가장 보람과 성취를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쁨을 느낀 적이 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길을 택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俞平根: 교수로서 기쁨은 「靑出於藍」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은 제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모교 후학들에게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 자신뿐이 아닌 모교의 모든 교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 회: 말하자면 학생들과 함께 자라왔다는 말씀이시군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응용학문 相生의 길 모색토록 靑出於藍... 모든 스승의 큰 기쁨

만 정부가 모교에 일정 부분의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간섭함으로써 그에 따른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非민주적으로, 非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바로 대학이 아닌가 합니다.

崔松和: 요즈음처럼 힘든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다만 지나갔기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망각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모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기응변으로 처신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여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모든 대학인이 합심하여 한데 뭉치면 새로운 세기에도 그에 걸맞는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희망적인 앞날을 기대할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단지 모교 출신이라고 해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李種昕: 이 문제를 학부 기준이 아닌 대학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모교 학부 출신 학생들이 모교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출신 대학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교 대학원은 폐쇄하거나 학생 수를 현저하게 줄여야 할 것입니다.

沈昌求: 교수 공채시 타고 출신을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규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동의합니다만, 당장 신규 채용시 우수한 인재가 모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 인사입니다.

니다.

80년 5월 14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서울역에서 1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모교 학생 5천여 명이 집회를 마치고 캠퍼스로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세시간 반을 걸어 오다가 신림동 근처에서 학교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 속에 교수들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당시 금지곡인 「선구자」를 李仁榮교수님께서 크게 불러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교수님이 계셨기에 교수와 제자 사이에 신뢰가 더욱 깊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분의 노래는 저의 기억에 아직도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감명으로 다가옵니다.

崔松和: 30년 전이나 요즈음이나 교수님들의 제자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디지털위성방송 康賢斗 시장



해양정책 최고과정 동창회 南正明 회장

“단기간에 수익 얻는 방송모델 창출”

모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로서 정년퇴임을 불과 1년6개월 정도 남기고 시작한 후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사장에 취임한 康賢斗(61년 文理大卒) 동문을 만나보았다.

—모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KDB 사장을 맡게 된 동기는.

『학자가 무슨 사업가가 될 수 있겠느냐는 주변의 끊임 없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방송학자로서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이 위성방송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KDB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선보일 위성방송은 그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KBS, MBC 등과 같은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TV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선, 수백개의 전문채널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지요. 화질이나 음향도 디지털방송이기에 고품질입니다. 또한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방송국이 편성한 편성표에 따라 TV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TV를 통해 e-mail도 주고받을 수 있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라고 하는데, 위성방송이 바로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위성방송 실시를 위한 튼실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송시스템, 정보시스템, 수신시스템 등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적인 콘텐츠를 확보하며 전국 2백개 영업망 및 콜센터를 구축하는 등 마케팅 인프라도 구축할 것입니다.』



사회 각계에서 올해 안에 위성방송이 개국될 것인 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권을 획득하고 1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위성방송 개국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한국에서는 최초의 위성방송사업자이지만, 세계적으로는 90년대 이후 많은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노하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시간도 단축시키고, 문제점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시장 재임기간 중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제가 그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이상적인 방송 모델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방송사 경영에 있어서도 「클린」과 「슬림」이라는 경영원칙에 충실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경영 모델 말입니다』

康市장은 모교 졸업후 KBS TV PD로 출발하여 한양대·서강대·모교 교수로 역임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 한국언론학회 회장, 한국방송학회 회장, KBS 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 (變)

“해군 복무 경험을 정책 수립에 반영”

지난해 5월 22일 모교 자연과학대학에 해양정책 최고과정(AMPP)이 신설됐다. 11월 3일 제1기 31명이 수료하면서 모교에 해양정책 발전기금으로 3천 만원을 출연했다. 최근 이들이 동우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에 현대미포조선 南正明고문을 선출했다. 이에 南회장을 만나 AMPP신설 배경과 향후 동창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해양정책 최고과정 신설 배경은.

『94년 신 해양법의 발효이후 전세계의 해양질서가 격변하고 있으며, 세계 각 나라들이 해양영토 확장과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의 국가정책을 위해 고도의 정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넓은 면적의 바다는 하늘이 내린 해양영토라고 보아야 하며, 이 영토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계획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정책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주요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러 과제를 포괄적으로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수준 높은 해양정책을 창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과정이 신설되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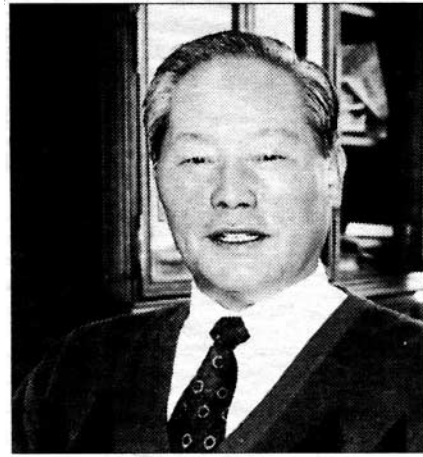
—주요 교육내용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으나 자연과학 측면의 해양은 물론 수산업, 해운, 조선, 유통 등 해양을 이용한 각종 산업과 정책 그리고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1기 회원 현황은.

『우선 전국어민후계자 중앙협의회,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경남영어조합법인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변호사 등 정계, 재계, 군 출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향후 동창회 운영 계획은.



『오는 5월 22일 올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전후반기로 나눠 연 2회의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10월 5일 수료하게 될 제2기 회원들과의 유대 강화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바다」라는 특수한 매개체로 인연을 맺은 과정이기에 무엇보다도 동질감에 있어서 다른 동창회보다 앞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동호회나 지역모임을 통해 더욱 결속을 다져, 회원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40년 가까운 해군 복무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은.

『군함을 타고 해외 여러 나라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 항구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꼈던 뿌듯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南회장은 61년 해군사관학교 19기로 입학, 65년 소위로 임관한 후 해상과 육상 근무를 거쳐 89년 첫 장성에 올랐다. 그 후 해군 조달본부 기획관리부장, 정비청장, 군수사령부 참모장, 조함단장, 참모차장 등을 지낸 후 98년 중장으로 전역했다. (變)

한겨레신문 權台仙민권사회1부장

종합일간지 최초 여성 사회부장

“복지·환경·노동문제의 돌파구 제시할 터”

『한 일본 기자가 본사를 방문한 후 「싸우는 신문 한겨레」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보적인 성향이 짙은 관계로 그렇게 보였으리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사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인 만큼 오히려 독자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느낌의 신문으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국내 일간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회부장이 된 權台仙(78년 師大卒·한겨레신문 민권사회1부장) 동문.

1988년 창간과 함께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한 權동문이 처음 맡게 된 분야는 국제부.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아도 여자 기자를 찾아보기란 힘들었다. 파리특파원을 거쳐 국제부장을 맡았을 때는 아예 위 아래 모두 남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權동문이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과 할 말은 꼭 하는 당당함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權동문이 기자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교직에 몸담고 있던 부친의 뒤를 이어 훌륭한 교육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權동문은 4학년 교생실습에서 뜻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키가 훗날하고, 다소 수줍이 난 남학생들이 어색하게(?) 느껴진 것이다. 순간 權동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올바른 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즉 교육의 목적과도 상통하는 언론계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한국일보. 그러나 1980년부터 언론민주화운동 바람이 불면서 신문사 내부에는 민주화를 지지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갈렸다. 지지자의 편에 속해 있던 權동문은 사회의 잘못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사표를 쓰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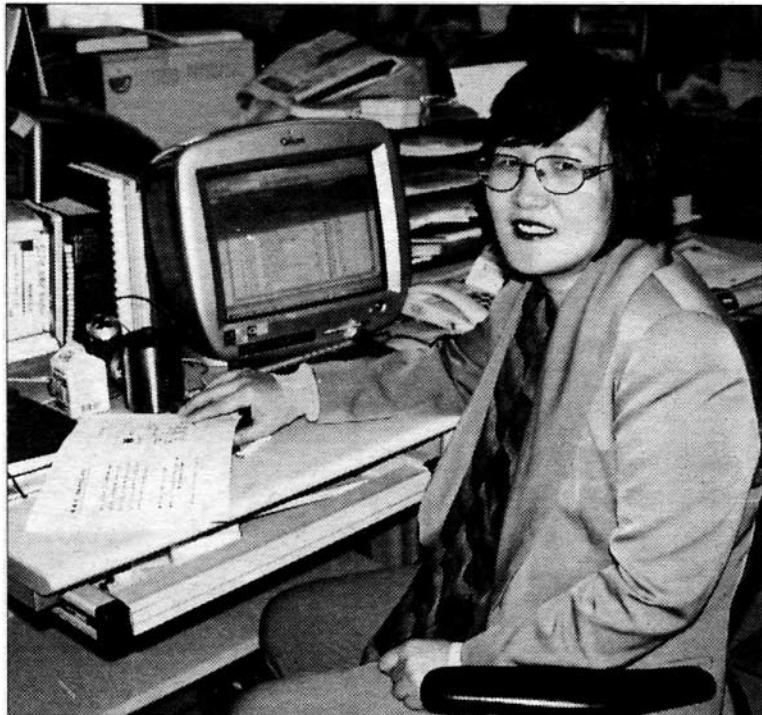
해직 당시 남편 白永瑞(81년 人文大卒·연세대 교수)동문이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權동문은 직장을 꼭 구해야만 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김&장 법률사무소. 그곳에서 7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보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삶과는 동떨어진 생활에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權동문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울퉁은」 정신 때문이었다.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겨내려는 정신력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97년 IMF 시절,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가하게 취재를 나갈 수 있느냐」며

프랑스 취재를 단번에 거절하기도 한 權동문은 하루 코스로 당시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총리를 직접 만나 위기상황 극복기에 대한 여러 기사를 작성, 한국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데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했다.

최근 한겨레신문에 「함께 하는 교육」이라는 섹션으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權동문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하나로 엮어주면서 독자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앞으로는 『사람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져 있는 문제들, 즉 보건복지, 교육, 여성, 환경, 노동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하여,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사회면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表)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南惠云사무총장

시력 떨어져 사법고시 포기

컴퓨터 화면 읽어주는 「소리눈 2000」 개발

『정보화시대에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이 느끼는 정보의 벽은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의외로 상당히 큼니다. 이에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좁히는 데 미력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 1월 창립된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南惠云동문.

83년 모교 경영대 경영학과 입학, 89년 모교 법대 공법학과 졸업이라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지닌 南동문이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눈을 돌리게 된 것

은 자신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대 2학년 재학 중 점점 시력을 잃어 가는 망막색소변성증에 걸린 南동문은 이로 인해 사법고시 1차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포기해야만 했다.

시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대학 졸업 후에도 南동문은 술한 좌절과 방황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南동문은 컴퓨터가 장애인의 「제2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

뒀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 「(주)아이넷21」을 설립한 것이다. 특히 南동문은 아이넷21을 운영해오면서 모니터상의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소리눈 2000」을 개발,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안겨 주었다. 스스로도 빛과 어둠만을 구별할 수 있었던 南동문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 준 것이다.

南동문이 「소리눈 2000」을 개발하게 된 것은 컴퓨터가 일반인들에게는 편리

하고 능률적인 도구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라는 기기가 일반인들과의 정보 격차를 더욱 넓힌다는 것과 장애인 재활 모델에 있어 혁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후자에 눈을 돌린 南동문은 드디어 「소리눈 2000」을 탄생시키고 그 후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및 교재 개발에 힘써왔다. 이런 공로로 지난해 신지식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정보 격차 및 정보 활용에 대해 보다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정보장애해소연구원을 설립했으며,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에서 중책을 맡아 장애인들 및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정보장애해소연구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서비스 및 장애인 학습 교재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에서는 장애인 정보 격차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정보화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南동문은 『현재 30여 개의 기업과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정보화 이슈사업, 장애인 전자도서관(인터넷상) 개설, 장애인 관련 무료보급지원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무료보급지원사업에 대해 『대기업들이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 풀을 형성, 지속적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南동문의 장애인에 대한 사랑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과 같이 젊은 나이에 시각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망막(RP)사랑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회장을 맡아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으며,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信)





달라스지부

매년 음악회를 통한 장학사업 펼쳐

글: 康聖浩 (85년 獸醫大卒·O'Connor동물병원장) 총무

「텍사스 사이즈」, 끝없는 사막을 달리는 카우보이의 모습 등이 연상되는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이다.

그 중 북 텍사스에 자리한 이곳 달라스는 포트워스라는 큰 도시와 함께 여러 개의 작은 도시가 어우러져 광대한 도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DFW라는 국제공항이 중앙에 위치해 있어 상업적인 입지 조건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와 함께 빌딩 임대료 및 집 값이 저렴해 미국의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곳에 살고 있는 한인은 대략 5만 명 정도로, 많은 한인 단체와 교회, 상가, 식당 등이 모여 큰 한인타운을 형성

하고 있다.

지난 1984년 故 姜遠奉(52년 商大卒) 동문이 지역 동문들을 규합해 달라스 지부를 탄생시켜 초석을 쌓았으며,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되어 동창회 활성화와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는 崔權子(68년 藥大卒)동문이 회장을 맡아 동창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달라스 지부는 약 8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달라스 부근 덴튼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 North Texas University는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의 유명한 음악대학이 속해 있으며, 이곳에 많은 수의 동문들이 재학중이다.

한편 동창회는 작년 봄 미국사회에 잘 알려진 달라스 심포니 부지휘자 겸 젊은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Scott Yoo와 피아니스트이자 Central Missouri State University 교수인 Dr. Mia Kim 등을 초청, 동문 및 교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음악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음대 동문들과 달라스 음악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합창

단도 함께 출연, 지역 주민들과 친목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동창회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작년에 한인 신문사 주최로 열린 교포 동창회 대회에 동창회가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 서울대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동창회의 주된 행사로는 모든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가족애를 만끽하는 야유회와 회원들의 친목 강화를 위한 골프대회, 장학사업을 위한 음악회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송년회 및 정기총회 등이 있다.

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며, 회원들 또한 동창회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崔權子 회장



작년 10월 개최한 가을 야유회.



영어영문학과 동창회

발전기금 5억 목표... 벌써 3억 모아

글: 鄭冀人(64년卒·한양대 교수)부회장



申禹植 회장

로 지난 89년에야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출발을 했다.

동창회의 공식 출범이 늦은 까닭은 다른 학과에 비해 동문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데다 群集보다는 소단위모임을, 외양보다는 내실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학과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하지만 비록 출발은 빠르지 않았으나 현 申禹植(57년卒·대한언론인회장)회장을 중심으로 어느 학과 동창회 못지 않게 활발하고 착실하게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특히 老壯의 원활한 조화를 비롯해 동창회와 모교의 협조가 가장 큰 자랑이라 할 수 있다.

동창회는 60년대 학번을 주축으로, 50년대 원로 학번들이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70~80년대 청장년 학번 동문들의 열성도 매우 뜨겁다. 아울러 동창회 회장단과 학과 교수진이 자주 동석해 학과 발전 및 후학 양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벌이기도 한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신년하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 때마다 40년대부터 90년대 학번까지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다. 가히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 보기에 매우 좋다고 하겠다.

또한 동문들이 학계는 물론 문학회, 언론계, 경제계, 관계, 종교계, 정계 등 그야말로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어, 화제도 다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우의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특히 매년 행사 때마다 「자랑스런 동문상」을 시상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모교 李相沃(58년卒)·孫鳳鎬(61년卒) 교수, 해양문화재단 趙正濟(63년卒)이사장, 韓光玉(60년入)대통령 비서실장, 許雲那(71년卒)국회의원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창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문들의 친목도모이고, 다른 하나는 학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창회에서는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근 「영어영문학과 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2003년까지 기금 5억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운동은 모교 교수들이 앞장선 「교수출

연 학술기금」에서 촉발돼 지난해 홈커밍데이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주)풍산의 柳津(83년卒)회장이 사재를 쾌척하는 등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모금액이 벌써 3억원을 넘어 동문들의 열의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창회에서는 장기 기금조성과 관련,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학과에서 개발한 한국형 TOEIC인 「TEPS」를 전국적으로 보급, 수익을 학과 장학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숙의중이다.

지금까지 동창회가 제자리를 찾는 정립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도약기에 들어선 셈으로, 최근에는 동창회 홈페이지 「www.snuel.co.kr」도 개설, 한층 더 동창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동창회는 현재 운영중인 골프모임 「삼목회」 외에 등산, 여행, 시 등 취미나 연구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가족동반 야유회 등 보다 다양한 행사를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작년 12월에 가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⑤8 (주) 아울렛 홈쇼핑

후불제 사이버 쇼핑몰의 선두주자로 '우뚛'

와인 및 악기 전문몰 도입으로 인기몰이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7초. 즉 한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맛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만큼 짧다는 얘기다.

이렇듯 바쁜 현대인에게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매개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B2B, B2C, 옥션 등의 전자상거래가 급증,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바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사이버 쇼핑몰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10만여 개의 사이버 쇼핑몰이 전 세계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후불제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전략으로 한국형 사이버 쇼핑구매시스템의 새 지평을 연 업체가 바로 지난해 3월 오픈한 (주) 아울렛 홈쇼핑(www.oulet.co.kr : 사장 鄭均·78년 農大卒)이다.

「후불제 시스템」이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가정으로 배달된 제품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따진 후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며칠 간 제품을 사용한 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다.

가격 비교 검색 사이트인 「에누리닷컴(enuri.com)」, 「베스트 바이어(bestbuyer.co.kr)」, 「오미(omi.co.kr)」 등에서 1일 국내가전 접수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울렛 홈쇼핑은 현재 월매출 20억원, 매월 20% 이상의 급성장세를 보이며 명실공히 「후불제 시스템」의 1인자로 우뚝 섰다.

현재 하루 접속량 30만여 건이 넘는 초성장을 보여온 아울렛 홈쇼핑은 고객이



鄭均 사장

아울렛 홈쇼핑만의 독특한 전략 중 하나인 「해피 콜센터」를 따로 두고 있다.

일명 「아줌마 부대」로 구성된 「해피 콜센터」는 고객의 눈 높이에 맞게, 고객의 구매조건 및 제품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기 때문에 일반업체들의 반품률이 5%나 되는데 비해, 아울렛 홈쇼핑은 반품률에 대한 고민을 1%이하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후불제라는 이유로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생겨나면서 아울렛 홈쇼핑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고객의 신원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선불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 상품이 유출되는 소지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소위 홈쇼핑이 갖추어야 되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컴퓨터, 전자·가전, 사무·통신기기, 화장품, 건강·미용, 식품, 스포츠·레저·건강, 유아·아동·완구, 자동차용품, 꽃배달, 주얼리, 생활용품, 웨딩 패키지 등 1만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는 아울렛 홈쇼핑은 특히 국제전자센터라는 오프라인 대형 쇼핑몰에서 아울렛 홈쇼핑이 제공하는 상품들을 전시하고 있

다. 인터넷 주문을 했어도 다시 한번 전화로 주문 확인을 하는 경우가 70%에 이르는 점을 착안, 고객의 만족도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

다. 이는 고객이 시장의 흐름을 직접 파악하며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아울렛 홈쇼핑이 고객에게 신뢰감과 믿음을 더해 주는 덕목은 바로 상품을 주문하면 3일 이내에 전달하는 신속한 배송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사이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소지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함이다.

아울렛 홈쇼핑을 진두지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鄭사장이 처음부터 성공적인 전략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미숙한 경험과 유통의

질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첫 사업에 실패한 鄭사장은 그러나 끊임없는 시장 조사와 도·소매의 흐름도를 정리하면서 「e-비즈니스의 주축은 유통」임을 간파, 내놓은 것이 바로 「후불제 시스템」을 갖춘 아울렛 홈쇼핑이다.

현재 홈쇼핑 외에도 와인 전문몰(vi-pwine.co.kr) 및 악기 전문몰(shar.co.kr)을 운영하고 있는 아울렛 홈쇼핑은 국내에서 와인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것을 파악, 추석이나 명절 때 10만원 이상의 선물보다 몇 배로 저렴한 와인을 선물을 할 시 그 반응도가 높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인식시키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고객들의 구매 입맛을 당기고 있다. 이로 인해 와인시장은 현재 매월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鄭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 사이트를 오픈하여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연간 매출액 1조를 목표로 두고 있는 鄭사장은 「탄탄한 자본기반을 갖추는데는 땀과 기적의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의 지속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약 1백억 이상의 투자 자문을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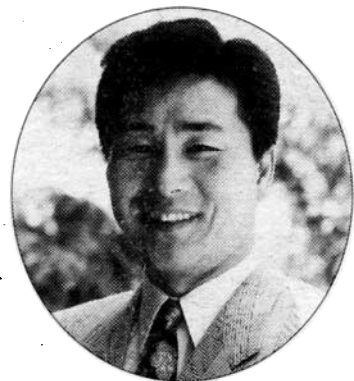


아울렛 홈쇼핑 홈페이지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의 기상정보

趙錫俊(77년 自然大卒)KBS 기상캐스터·SJ미디어전략연구소장



날씨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 높이로 10km 이내의 범위에서 거의 이루어진다. 대기조건에 따라 지상에서는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하기도 한다. 변덕날씨 때문만으로도 지구상에서는 매년 수 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날씨로 인한 질병이나 대기오염의 영향까지 넣는다면 수 백만 명이 날씨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날씨변화를 예측해서 이를 인간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인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공간 그 자체가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이다. 날씨를 관찰하고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문명도 발달한다. 의식주 생활 향상이 그렇고, 군사학이나 정보통신, 컴퓨터의 발달 근저에도 결국은 복잡한 「날씨방정식」을 풀고자 하는 착상에서 연유된 것이 많다.

기상정보도 하나의 유통상품이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 소비의 단계를 거친다. 기상정보의 생산에는 막대한 인프라와 비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틀에서 기상업무를
수행하고,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산업발달과
기업경영,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

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담당한다. 요즘은 국가에서 생산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기상회사에서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혈압과 체온을 재고 X-레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기상전문가들도 날씨라는 「환자」를 대상으로 기압, 기온을 측정하고, 구름사진, 레이더 사진 등의 각종 날씨 진찰부인 일기도를 만들어 현재 상황을 파악한 다음, 수퍼컴을 활용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를 예보하는 것이다.

제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날씨상품에서도 유통이 중요하다. 통상적인 기상정보의 유통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기상전문가가 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보생산자인 기상청 직원이 기상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출연하였다. 그러다 1980년대 초부터는 기상전문기자가 등장하고 이어서 기상캐스터, 기상리포터, 기상컨설턴트의 직업이 탄생하면서 기상정보의 유통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또한 요즘은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발달로 기상정보를 유통시키는 수단도 공중파 TV, 케이블TV,

위성TV,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기상정보 활용에 있어서 소비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 우리 국민은 기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가 즉, 기상청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국가가 모든 도둑을 잡기 위해 경찰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방법의식과 보안장비로 무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마찬가지로 날씨에 관한 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틀에서 기상업무를 수행하고,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산업 발달과 기업경영,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국민 즉, 소비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소비자가 빠르고 신선한 기상정보를 전해주는 방송을 선택하고 맞춤형 기상정보가 서비스되는 핸드폰을 구매한다면 바로 기상정보에 있어 소비자 혁명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정보상품 소비패턴이 곧 디지털 정보 시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암기교육」... 당국은 왜 모르나?

李美賢(83년 法大卒)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1979년도에 치른 서울대 입학시험 중 수학이 유난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들 했다. 나 역시 시험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수학 시험지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문제를 읽었지만 첫 문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아 무척이나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다 합해야 대역섯 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걸 나중에 풀어야겠다며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를 몇 번 거듭하다 보니 초조하기 짝이 없었다. 마음을 가다듬어 보겠다고 시험지를 뒤집어서 맨 끝의 문제에 도전했는데 다행히도 풀렸다. 그렇게 해서 겨우 정성차린 후 다시 1번 문제로 돌아와 온갖 복잡한 방정식을 동원해가며 한참을 끙끙거린 결과 어렵사리 풀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며칠 후, 중학교 3학년인 동생이 『누나, 서울대 수학시험 문제 되게 쉽네. 내가 1번 문제 풀었다』하는 것이었다. 애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하도 우기기에 그럼 해보라고 했더니 큰 원과 작은 원을 두 개 그린 후 직선을 몇 개 그리더니 아주 간단하게 답을 구해버리는 것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너무나 허무했고 자존심이 상했다. 수학선생님께 그 일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그 문제는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동생이 이용한 방법은 그 중에 하나일 뿐

이야. 다만, 너희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미적분이니 삼각함수니 하는 것들로 머리가 딱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쉬운 문제를 아주 어렵게 푼 셈이란다』하며 웃으셨다.

당시 법대 합격생들의 수학 평균점수가 40점을 겨우 넘었다는 것을 보면, 1번 문제를 가지고 해맨 것이 나만은 아닌 것 같으니 그저 풀었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너희들은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푼 셈』이라던 선생님의 말씀은 영 마음이 찡찡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를 확실적인 주입식 교육제도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오던 내가, 요즘 내 아이를 키우며 그래도 그 때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생각을 수없이 한다. 물론 우리 학창시절에도 이미 입시지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고3병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자유를 누렸으니 그런 말도 생긴 것 아니었을까? 내 기억으로는 적어도 고2 때까지는 읽고 싶은 책도 실컷 읽고 방학이면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보다는 그 때 읽었던 책들인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 초등학생까지도 우

리 고3 때 못지 않게 공부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이런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린애들을 볶을 필요가 있느냐며 초등학교 6년간 즐겁게 살도록 내버려 둔 엄마의 잘못된 소신 덕택에 우리 아이는 결국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제대로 흥역을 치렀다. 남들은 2~3년씩 교과과정을 앞서간다는데, 이 애는 당장 1학년 과정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겨워했다.

결국 은 우리도 남들처럼 이 아이를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에 보내고, 학원 안가는 저녁시간에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며 또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를 달달 볶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시작했지만, 대신 그렇게도 활달하던 아이의 두 어깨는 항상 축 처져 있다. 이렇게 종일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안쓰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이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다. 예전에도 참 쓸데없는 것들 많지도 가르친다고 투덜댔지만, 그 후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교과과정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외워야 할 잡다한 지식도 더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수학조차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 유형을 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암기 경쟁이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말살시킨다는 간단한 진리를 교육부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 숙제를 하며, 심청전에 대한 감상을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효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며, 봄 가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산에 있는 고드름을 녹인다는 약간은 황당한 내용을 적었던 우리 아이지만 요즘은 교과서 내용을 달달 외워서 학교에서 원하는 모범답안을 잘도 써내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성적이 올라간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서 꼭 기쁘지만은 않다. 아이는 하루종일 공부에 시달리는데, 정작 그 나이에 꼭 읽어야 할 책 한 권 제대로 읽힐 시간조차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틀에 박힌 교육에 암기도사가 되어 버린 이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쯤이면 아마 초등학생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헤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만의 기우일까?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 나의 소박한 바람이라면 그저 내가 누렸던 얼마 안 되는 학창시절의 여유 낭만이라도 우리 아이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뿐이다.

모교소식

李基俊총장, 도쿄대 졸업식 축하

日 과거사 왜곡, 비판·반성 촉구



모교 李基俊총장이 지난 3월 28일 일본 도쿄 시내 국제포럼 강당에서 열린 도쿄대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李基俊총장과 도쿄대 하스미 시게히코(蓮實重彦) 총장은 역사교과서 등 일본

의 과거사 왜곡문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다.

李총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 총장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양국의 대학사상

초유의 일이며,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돌이켜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편견없는 열린 세계관을 갖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축사요지 참조)

이에 앞서 하스미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20세기의 일본에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36년에 걸쳐 유린한, 어떤 견지에서 봐도 도저히 정당화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다』며 『풍요로운 미래를 공유해야 하는 귀중한 이웃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대해 역사적인 기억을 왜곡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과거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작은 자기만족은 얻을 지 몰라도 미래에 대한 용기는 결코 전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1877년 도쿄대 개교 이래 외국인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며, 앞으로 양국은 물론 국가간 관계발전에 도 전향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교 창업지원센터 개소

벤처기업 투자설명회 열어



지난 4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에서 본회 林光洙수석부회장, 鄭哲圭·孫京植부회장, 관악회 鄭八道·金秉順이사를 비롯해 모교 趙完圭전임총

장,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閔相基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건물 개관 및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업지원센

터 李俊植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본관 건물 건립에 출연한 LG전자, SK텔레콤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건축공사에 참여한 관계자에 대해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과 李基俊총장의 식사, 趙煥益 前산업자원부 차관보, 관악구 金熙喆구청장, 입주기업 대표 한 패이퍼매직 李冕雨 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해 합리적 평가와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 본관 개관식을 계기로, 6개 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현재 창업지원센터에서는 2백여 개 우수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變)

李基俊총장 도쿄대 졸업식 축사요지

우리가 살아갈 21세기는 情報技術의 高度化로 인해 새로운 지식의 創出과 普及의 速度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에 따라 삶의 樣式도 놀라운 速度로 變化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東亞細亞 各國은 危機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經濟와 産業 分野에서는 물론, 社會制度, 言語, 慣習, 生活 樣式, 그리고 나아가서는 學問의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亞細亞 的 價値와 文化가 衰落할지 모른다는 危機感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世界化 潮流로 인한 亞細亞 各國의 危機를 새로운 發展의 機會로 轉換시킬 수 있는 知慧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亞細亞 國家들이 亞細亞의 價値와 文化를 찾아내고 開發하는 일에서 서로 아낌없는 協力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變化를 보다 積極的으로 受容하여 새로운 世界의 標準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世界化 時代의 새로운 尺度가 될 世界의 標準이 단순히 劃一的으로 歐美의 標準을 意味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西歐의 文化와 價値가 全世界人의 삶을 一方으로 規制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東亞細亞 標準 역시 단순히 한 特定國家의 標準을 意味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他文化에 대한 理解와 配慮속에 相生을 꾀할 수 있는 普遍的 標準이 創出되어야 하듯이, 東亞細亞의 標準도 東亞細亞 國家들간의 相互 理解와 配慮 속에 相生을 꾀할 수 있도록 創出되어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東亞細亞 大學들간의 學問共同體(East Asian Scholarly Network)가 形成된다면 亞細亞의 價値를 바탕으로 한 世界의 標準을 세우는 일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地理의 近接性과 文化的 歷史的 類似性이 있기 때문에 東亞細亞 大學들은 相互 理解와 協同에 있어서 큰 利點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漢字 文化圈의 思考方式과 學問的 패러다임을 빨리, 그리고 쉽게 서로 받아들이고 또 創出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東京大學과 서울大學간의 실질적인 連帶와 交流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東京大學과 서울大學간의 깊은 理解 增進과 相互 協力을 통해 兩國에 새로운 21세기型 指導者들이 輩出됨으로써 消極的, 受動的 態勢가 아니라 보다 積極的, 能動的으로 世界史를 主導해 갈 수 있으리라는 期待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兩 大學은 서울大學에서는 日本學 研究를, 그리고 東京大學에서는 韓國學 研究를 각각 深化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2000년 6월 共同宣言을 採擇, 調印한 바 있습니다. 이 共同宣言에 근거한 學生 交流의 一環으로 양 대학에서 번갈아가며 워크숍을 열어 한일 兩國의 歷史와 傳統에 대해 相互 理解의 契機를 마련하고, 이 바탕에서 새 세기의 비전을 創出할 것을 提案합니다. 또한 基礎 및 應用 學問 分野에서의 協同 研究로 世界科學의 새 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며 人文學의 共同 研究로 東亞細亞의 모델의 人間學에 대한 劃期的인 研究 成果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공 예약제」 도입

非인기학과 보호 취지

모교는 지난 4월 13일 총 3천 9백명을 선발하는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 세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정시와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 광역화」 원칙에 따라 전공 구분 없이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비인기학과와 枯死를 막기 위해 32개 학과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수시모집에서 「전공 예약제」를 도입, 전공별로 최소 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전공 예약제는 신입생을 광역 모집단위로 선발하되, 비인기학과

과 존속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신입생 때부터 선발해 기초학문

과 비인기학문의 존폐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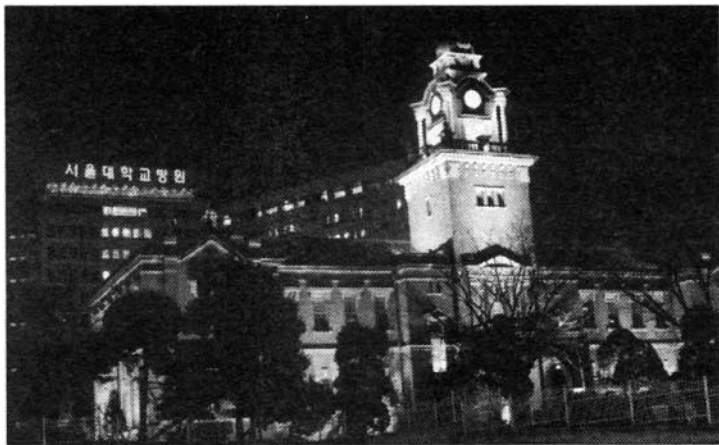
모집 인원의 30% (1천1백70명)를 선발하는 9월의 수시 모집에서는 광역단위로 7백53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4백17명(음대·미대 8개 전공 87명 포함)은 전공 예약제로 뽑는다.

〈전공 예약제 실시 학과〉

모집 단위	전공 예약학과(인원)
인문대학	독문(10) 불문(10) 노문(8) 서문(8) 언어(8)
사회과학대학	인류(10) 심리(10) 지리(10) 사회복지(10)
자연과학대학	천문(10) 대기과학(10) 지구환경과학(10) 해양(10)
공과대학	건축(20) 산업공학(15) 원자핵공학(15) 조선해양(20)
농생대(자연계)	식물생산과학(16) 산림자원(10) 동물자원(10) 천연섬유(10)
사범대	어문교육 독어교육(10) 불어교육(10)
	인문사회 교육학(6) 사회교육(8) 역사교육(8) 지리교육(8) 국민윤리(8)
	수학과 물리교육(8) 화학교육(8) 생물교육(8) 지구과학교육(8)

「대한의원」 복원 조명 점등식

백년을 잇는 장안의 명소로 재탄생



1908년 10월 개원 당시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조선은행(現한국은행), 조선호텔과 함께 장안의 3대 건축물로 사랑받던 大韓醫院이 건물 복원에 이어 야간 조명공사를 마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약 1백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명소로 재

등장했다.

모교 병원(원장 朴容炫)은 지난 4월 11일 오후 8시 30분 서울시 高 建시장, 모교 李基俊총장, 의대동창회 李吉女회장, 의대 李鍾郁학장, 치대 鄭鍾平학장 등 내외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원 경관 조

명 점등식을 가졌다.

현 모교 병원의 중앙(본관과 치과병원 사이)에 위치한 대한의원은 1907년 준공해 1908년 개원한, 모교 병원의 전신인 광혜원의 맥을 이은 우리 나라 근대의료의 본산.

대한의원은 1979년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2월 부속건물까지 추가 지정됨에 따라 건물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48호)로 지정된 우리 나라 의료의 역사적 기념물이다.

현재 대한의원 건물은 의학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위는 나무와 잔디, 벤치 등으로 꾸며져 있어 환자와 보호자, 일반인들의 휴식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조명은 바닥과 벽면, 돔, 시계탑 등에 총 77개(소요전력 13kw)로, 연두색과 파란색, 붉은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權旭鉉교수와 제자 14명

모교 발전기금으로 12억 출연



지난 4월 9일 공대 사제지간인 전기컴퓨터공학부 權旭鉉교수(사진)와 벤처기업인 14명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사재 12억을 출연했다.

金鍾一(83년卒), 卞大圭(83년卒·휴맥스 사장), 金容勳(84년卒·파인디지털 사장), 李起元(84년卒·기인시스템 사장), 金德祐(85년卒·우리기술 사장), 崔漢弘(85년卒), 李圭昇(86년卒), 魯宣奉(87년卒), 李鎔勳(87년卒), 姜中庸(88년卒), 盧鉀善(88년卒), 朴庠宣(89년卒), 朴庭佑(89년卒), 李宰榮(91년

卒)등문 등 석·박사 과정시 權교수의 지도를 받은 제자 14명이 많게는 1인당 3억원까지 개인 재산을 기부했다.

이번 출연금은 權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의 연구공간 증축에 쓰일 예정이다.

모교 병원 간이식팀

환자肝 일부 남기고 이식 성공

환자 간의 일부만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타인의 간 일부를 떼어내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술이 국내 처음으로 성공했다.

모교 병원 간이식팀(李健旭·徐敬錫·李國賢교수)은 지난 3월 5일 12시간의 대수술 끝에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고 있던 생후 29개월된 김모군에게 아버지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기존의 간 이식은 환자의 간 모두를 떼어내고, 뇌사자의 간 전체나 가족 등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이식(생체 부분간 이식)하는 것으로, 실패할 경우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시도한 방법은 환자의 간 중 일부만 떼어내는 것으로, 이식에 실패해도 사망 위험이 없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자 자신의 간 기능이 살아있어

공여자의 일부 소량의 간 절제만으로도 이식에 성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간 일부를 떼어내기가 전체를 떼어내는 것보다 어렵고 특히 남아있는 간과 이식할 간의 혈관기능을 보존해가며 이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내에서는 아직 성공한 바 없었다.

박물관 수요교양강좌

박물관(관장 李鍾祥)은 올해에도 학생, 교직원, 일반인을 위한 무료 공개강좌인 수요교양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수요강좌는 「동양 미술사의 이해」라는 부제 하에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다. 우리 나라의 고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문의 880-5332, 5333, 8092) (變)

平生 한번 모교발전과 동창회 결속 및 활성화를 위한 회비납부

동창회비는

- 후배들의 장학사업
- 동문 사회의 가교 역할을 위한 동창회보 발행
- 동문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모교 각종 지원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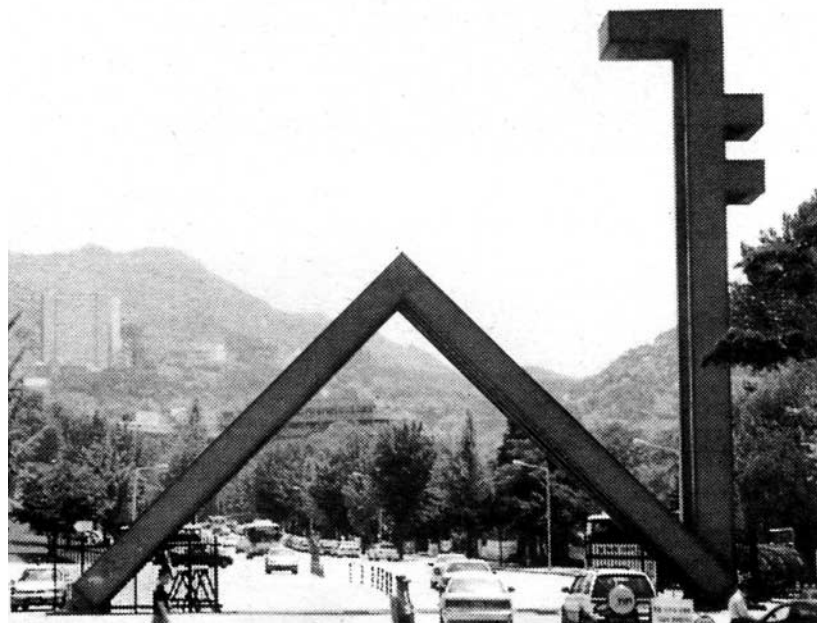
마음은 있지만 번거로운 연회비를 쭉쭉 한번 납부로 잊어버리세요.

	연 회 비	평생회비(일반회비 10배)
일반회비	20,000원	200,000원

- 동창회보(매월)·포켓용 다이어리(11월중)를 평생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문 음악가의 기념 음반(CD)을 보내 드립니다.(8월중 발송)
- 동창회 관련 안내를 직접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조흥은행 397-03-002804」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계좌로 ON-LINE 입금하시거나, 동창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GIRO 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입금후에는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는 02) 702-2233 총동창회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본 서울대인

3수 끝에 서울대 가족이 되다

金貞菊：金星銖(74년 齒大卒·치과의원장)동문 부인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상아(법대 4년), 김재범(치의예과 1년), 金星銖·金珍我동문, 원내 필자.

뒷인 어떤 성공 경험도 자신의 능력보다는 우연히, 또는 잘하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모습은 한없이 크게 지각하면서 자신은 늘 축소시키는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아이, 언제나 자신감이 없고 나서길 두려워하는 아이, 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재주가

없는 아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 때문에 스스로 닭으로 지각하고 편히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이에게 삼 세 번의 의미는 다른 아이들의 「서울대 합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야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그 열등감의 터널을 빠져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승부를 가릴 때 삼 세 번을 하듯이 아들도 삼수 끝에 관악의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를 오기 위해 삼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닭으로 지낸 재수까지는 합격증을 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이 아이에게 서울대라는 집안 환경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죽음을 들먹이며 이 집안에 자신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태연하고 침착하게 연기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보듬느라 보낸 많은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언제나 서울대는 갈 수 없는 미지의 봉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봄에 아들은 자신이 독수리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열심히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피아노 선율로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문득 오랜 잠에서 깨어난 왕자처럼 독수리로서 자신을 다듬어 갔습니다. 오랜 잠을 자면서 꾸었던 악몽들을 지워나갔습니다. 악몽에 시달린 이 아이에게 2001년 1월 27일 드디어 아버지, 누나들과 동문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논술시험을 치르던 그 날처럼 하얀 눈이 엄청난 무게로 쏟아지고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배경처럼 잘 어울리던 그 날, 생일 미역국을 받고 앉아 떨어졌을 거란

생각 때문인지 『에이! 하필 오늘 발표해 가지고 미역국을...』하며 공시렁거리던 아들에게 합격소식이 눈길을 뚫고 도착했습니다. 어디다 감추었었는지 나도 모를 만큼 많은 눈물을 토해냈습니다. 내용은 가슴이 아팠지만 해피엔드로 끝나는 드라마를 보고 일어서는 관객 같았습니다. 신이 계신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감사장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논술시험을 보던 날, 학생휴게실 2층에서 멍하니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갑자기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들어 논술시험을 보고 있는 내 아들을 생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긴 여정이 끝나는 날
하늘에선 소리 없는 축복이 내리고
무한히 황홀한 겨울정경에
아름다운 음악은 더 할 수 없는
감미로움으로 다가왔다.
아들아!
이제 그 인고의 시간들이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한해의 마지막날, 항상 듣는
「합창」의 chorus처럼
설경이 주는 그 송고한 아름다움이란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저 흰 눈이 소리 없이 내리듯
그렇게 네 생각의 片鱗들이
원고지 위에
차곡차곡 내려앉고 있음을,
그렇게 너의 고통이,
염원의 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엄마는 느낄 수 있어,
이 순간, 마음 속으로 편안함이
저 눈처럼 평화롭게 내려앉고
있음을 전하고 싶다.
귀한 내 아들아!
내가 귀한 만큼 너를 더 귀하게 만든
그 큰 힘과 함께 너는 참으로
먼길을 걸어 온 것 같다.
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그 시간들을
마음 속에 간직하며
또 다른 출발을 하자꾸나.
정말 장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눈에 덮인 이 아름다운 campus를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오늘, 드라마틱한 한 편의 겨울동화를
보고 있는 것 같구나.
아들아!
이제 서서히 생각을 마무리해
 옮겨 적을 시간이다.
묵묵히 자기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저 눈처럼
너도 그렇게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점심을
먹자꾸나.

논술 쓰느라 애쓰는 아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엄마가.

이런 글이 무색하지 않게 아들은 아빠의 후배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서울대학교 동창회에 이제는 갈 수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서울대를 강요하진 않았지만 못 가봤기 때문에 더 가고 싶었을 내 아들의 환한 미소가 관악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

우리 집에도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1남 2녀 중
막내인 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수리들
속에서 스스로 닭으로

자처했는지도

모릅니다

”

“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이 아이에게
서울대라는 집안
환경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린 독수리를 잡아다가 닭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동물학자가 찾아 왔습니다.

『저 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잖아!』
『맞아, 하지만 나는 독수리를 닭이 되도록 가르쳤다네』

『아니야, 그래도 독수리는 독수리지. 언젠가는 하늘 높이 날아오를 걸세』

『천만에 절대 날지 않을걸』
동물학자와 남자는 시험을 했습니다.
『너는 독수리다. 네가 있을 곳은 저 높은 하늘이지 이 낮은 땅이 아니야. 훨훨 날아봐』

그때마다 독수리는 번번이 닭들 곁으로 돌아가 모이를 쪼아먹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도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 부들부들 떠는 독수리에게 정면으로 태양을 보게 했을 때, 독수리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아프리카 사람인 제임스 애 그레이가 쓴 「날지 않는 독수리」의 일부입니다. 이 책은 동화라기보다는 백인들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흑인들의 정신을 깨우치기 위한 교훈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1남2녀 중 막내인 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수리들 속에서 스스로 닭으로 자처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너는 독수리야』라고 외쳐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독수리는 거의 스무 해를 닭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각기 너무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면서 비교하지 않고, 아이들마다 다른 칭찬과 격려를 했지만 아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특히 누나와의 비교는 자기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열등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자신의

SNUA OPINION LEADER

최근 모교 의대 徐維憲교수가 새로운 치매발생기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기초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徐교수가 치매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주장한 「C단 단백질」에 대한 글을 받아 소개한다.

치매의 정의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질환으로 경제적 손실이 예산보다 많은 1천억 불에 해당되며, 또한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불특정 다수인,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질병이 바로 「21세기 질환」으로 불리는 치매이다.

치매(dementia)는 기억력 장애, 판단력 상실 등 정신기능의 전반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결국은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질환이다. 치매는 라틴어의 디멘스(demens)에서 나온 말로 「제거한다(de)」, 「정신(mens)」, 그리고 「병(tia)」이라는 뜻이 결합된 용어로서 문자 그대로 「정신이 제거된 질병」이다. 치매의 의학적 정의는 「이미 획득한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또는 「언어성과 비언어성 대뇌 기능의 저하」로 표현된다. 노년이 되면서 자연 현상으로 정신적 능력과 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노화(aging)와 뇌의 기능 장애로 정신적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치매를 명백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치매는 「사회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치매의 종류와 발병률

치매의 원인은 다양해서 약 50% 정도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20~30%는 혈관성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등이 있으며, 약 15~20%는 알츠하이머형과 혈관성치매 양쪽을 다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이라는 노인성 치매질환은 50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60세 이후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빈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중대한 의료,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병의 발병률은 65~74세 사이에는 10%, 75~84세 사이에는 19%, 85세 이상에서는 47%로 나타나 있다. 85세까지 산다면 부부 중 한 쪽은 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 질환 환자가 4백만 명, 우리 나라에서도 약 2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고, 사망률은 심혈관 질환, 악성종양, 그리고 뇌졸중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혈관성치매에 비해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20년이 되면, 평균수명은 약 77세가 되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633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약 1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머지않아 각종 노화관련 퇴행성 신경질환들이 커다란 의료 및 사회

망각의 병, 노인성 치매의 정복

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노인성 치매의 병인과 C단 단백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신경반의 주성분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amyloid beta protein)이 질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약 4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이 단백질은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amyloid precursor protein : APP)로부터 생성되고, 신경세포 배양계에 첨가하는 경우 세포독성을 나타낸다. 또한 실험동물 뇌에 주입하면 주입 부위 근처에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병변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침착과 실제 임상 환자에게서 보이는 신경세포의 소실 및 인지기능 저하와는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학계에 많이 보고되어 왔다. 이에 필자는 「C단 단백질 학설」을 주장, 이를 입증하는 논문을 국제과학기술훈론색인(SCI)에 지난 3년 간 약 40편을 발표하였으며,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

C단 단백질은 신경 세포의 세포막에 직접 작용하여 막에 구멍을 형성하고, 세포 내로 칼슘의 유입을 증가시킴으로 칼슘의 항상성을 붕괴시켜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포를 죽게 만들며 이러한 독성은 베타 단백질보다 수백 배 강력하다. 또한 이 C단 단백질은 신경세포를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흥분 독성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또한 일부분은 다양한 조건에서 부분적으로 β -sheet라고 불리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독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2. C단 단백질의 염증반응 유발효과

치매 환자 뇌에서 염증반응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염증반응이 병인기전에 중요하게 관계하리라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C단 단백질의 염증반응 유발에 대하여 연구했다. C단 단백질은 정상세포와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를 활성화시켜 염증유발 물질인 Nitric Oxide(NO)와 IL-1 β TNF- α MIP-1 α MLP- α RANTES 등의 합성을 증가시키므로 염증을 유발함을 밝혔다.

인간의 삶 황폐화시키는 질환 85세 이상 발병률 47%에 달해

C단 단백질 생성 억제제 개발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중요 단서

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즉, 정상적인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 중 대사이상에 의해서 생산된 C단 단백질이 강한 신경세포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고, C단 단백질의 독성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보다 10배~100배 이상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필자의 실험실에서는 이미 C단 단백질을 대량 합성하여 정제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이 C단 단백질의 여러 가지 독성을 국내외 우수 학술지는 물론 각종 국제 치매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발표해 왔다. 저명한 과학 학술지인 「Nature」紙에서도 캐나다 학자의 C단 단백질 유전자를 이식한 실험동물 쥐가 가장 성공적인 치매 모델 쥐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 대한 Mattson 박사의 해설 논문에도 필자의 논문이 중요 논문으로 인용될 정도로, 필자의 「C단 단백질 가설」의 중요성은 세계 학계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동연구를 제안해오고 있으며 유명 의학회사인 「Cal biochem」으로부터 전 세계학자들에게 C단 단백질의 공급, 판매를 제안 받고 있다. 다음으로 C단 단백질의 독성에 대한 필자의 그 동안 연구 결과를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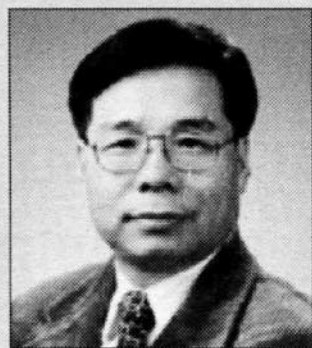
1. C단 단백질의 독성 발현과 세포 내 칼슘 항상성과의 관련성

3. C단 단백질의 기억 및 인지기능 손상 관련 연구

C단 단백질에 의한 학습 및 기억능력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 쥐의 뇌에 C단 단백질을 직접 주입한 후 그에 대한 연구를 실행했다. 그 결과 C단 단백질을 주입한 쥐는 정상 쥐에 비해 학습 및 기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관찰하였고, 또한 알츠하이머 환자의 노인반 주위에서 쉽게 관찰되는 GFAP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C단 단백질을 투여 받은 쥐는 또한 신경전달물질 중에서 인지기능에 많이 관련되고 있다고 알려진 아세틸콜린의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 실험결과는 노인성 치매 환자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증상인 인지 및 기억력 저하증상에 대한 C단 단백질의 독성 연관성을 증명한 것이다.

4. C단 단백질 유전적 돌연변이의 클로닝 및 신경세포 사멸에 대한 영향조사

C단 단백질의 세포독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C단 단백질의 여러 가지 deletion mutant 등을 제조, 실험한 결과 C단 단백질의 여러 부위가 기존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보다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베타 단백질보다 C단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시키거나 대사를 촉진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미래의 예방 및 치료대책이



徐維憲

- 73년 모교 의대 졸업
- 모교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 모교 의대 신경과학연구소장
- 국제치매학회 이사
- 한국노벨상수상지원본부 이사
- 과기부 치매정복 창의연구단장
- 한국뇌신경과학회 이사장

됨을 시사하였다.

5. 미토콘드리아의 cytochrome C의 방출 효과 연구

C단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반응하여 세포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cytochrome C의 방출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보다 더 많이 증대시켜서 세포사멸을 유도시킴을 밝혔다.

6. C단 단백질의 핵 내 발현

뇌에 독성 물질인 ibotenic acid를 주입할 경우에 이와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가 죽게 된다. 이때 C단 단백질이 핵 내로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켜 세포사멸을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C단 단백질이 치매 이외에 뇌에 자극이 가해질 때 신경세포 사멸 유발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7. C단 단백질의 tau 단백질의 인산화
타우(tau) 단백질은 미소관(microtubule)과 결합하는 부수 단백질로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인산화되어 신경세포 안에 노폐물처럼 축적된다. 필자의 실험으로 C단 단백질이 이 타우 단백질에 직접 영향을 미쳐 비정상적으로 인산화를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신경 세포에 특이적인 여러 독성 작용들을 발표함으로써 「C단 단백질 가설」은 치매 치료제 개발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아닌, C단 단백질의 생성 억제제 및 독성 방지제의 개발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중요한 단서임을 밝혔다. 필자도 천연물로부터 항콜린에스테라제 효과와 기억력 증진효과를 가진 단일성분인 DHED(Dehydroevodiamine HCl)를 분리해 내는데 성공하였고 실험실내 검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억력 감퇴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이 물질이 강력한 항 치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독성확인을 하고 있다. 곧 머지않아 세계적 신약이 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긴 터널을 지나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망각의 병, 노인성 치매가 언젠가 우리 관악인의 힘으로 정복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김포 지부

초대 회장에 金鍾逸동문 선출

김포지부동창회는 지난 3월 22일 김포시청 부근 「청학동」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金鍾逸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총무에 金勇進(79년 藥大卒·마성약국 약사)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감사에 金勇南(84년 人文大卒·김훈건설 이사)·金昶執(87년 齒大卒·치과의원장)동문을 선임했으며, 朴宗雨(62년 法大卒·국회의원)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김포지부동창회에는 현재 李庸桓(54년 農大卒·前김포고교 교장)·崔俊浩(56년 法大卒·법무사)·閔鮮泓(63년 農大卒·김포중교 교감)·禹宰性(75년 藥大卒·세명약국 약사)·崔煮東(79



년 醫大卒·김포병원장)·蘇淳浩(84년 醫大卒·중앙정형외과의원장)동문 등 회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초대 회장에 선출된 金鍾逸동문은 56년 법대 법학과를 졸업, 노동부장관 비서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노동부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객원교수로 활동중이다.

제주 지부

신임 회장에 文大彈동문 선임

제주지부동창회(회장 金英昊)는 지난 3월 31일 데일리 뷔페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회장에 文大彈동문(사진)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梁容和(61년 文理大卒·前제주여고 교감)·姜榮禧(64년 獸醫大卒·제주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감사에 梁永洙(69년 文理大卒·제주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동문을 선출했으며, 총무에 姜昌材(79년 社會大卒·변호사)동문을 선임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선출된 文大彈동문은 61년 모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83년 모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66년 언론계에 투신한 文회장은 동아일보 기사를 거쳐 제주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제주관광전문대 및 한라전문대학 강단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치과대학

梁源植동문 새 회장에 뽑혀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池憲澤)는 지난 4월 27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제2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池회장은 「21세기에 들어와 모교는 더욱 발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동창회 구조는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며 「세계 제일의 치과대학을 향해 뛰고 있는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는 동창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교 鄭鍾平학장은 「모교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학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池회장은 그 동안 모교와 동창회,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白尊濟(47년卒)·金熙耿(48년卒)·閔丙一(56년卒)·金明國(58년卒)·卞金玉(59년卒)·金讚淑(60년卒·본회 부회장)·마츠오 히로시(松尾弘)동문 등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梁源植(61년 齒大卒)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崔在京(57년卒)·南東錫(61년卒)·崔光哲(62년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梁회장은 69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모교 병원 치과진료부원장, 치대동창회 총무 등을 역임했다.

스위스 지부

全회장 본회 방문



지난 4월 2일 스위스지부 全命濟(48년 文理大卒)회장(사진)이 본회를 방문했다.

지난해 본회 정기총회에서 우수지부로 선정된 바 있는 스위스지부는 현재 60여 명의 동문이 국제 금융·외교 분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全회장은 「동문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그 동안 모임을 자주 갖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올해부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여성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리교육과

吳洪哲회장 선출



지리교육과동창회(회장 具昌謨)는 지난 4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具회장이 해외를 순방하며 찍은 작품 사진을 감상하고, 「젊은 지리교사 모임」이 베트남을 답사하며 촬영한 슬라이드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吳洪哲(사진)동문을 선출했다.

吳회장은 58년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졸업, 경희대 대학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과 학계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

경영대학원

장학금 전달식 가져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禹德和)는 지난 3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경영대학 학장실에서 趙東成학장, 金秉權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禹회장은 모교 재학생 朴應彬·曹勝鉉(석사 1년)군에게 각각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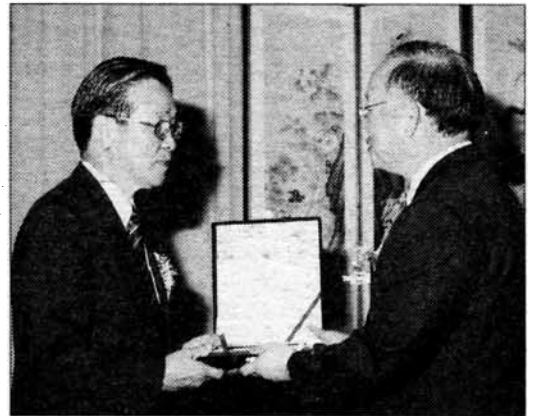
최고경영자과정

제1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

최고경영자과정 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4월 13일 신라호텔 다이너스 터룸에서 동문 1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144차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모교 경영학과 李正浩(60년 商大卒)교수(사진 左)가 올해 처음 제정한 「서울대 AMP 자랑스러운 교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그 동안 모교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尹桂燮(68년 商大卒)전임 학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孫희장을 재선출했으며, 이어진 조찬회에서 서강대 李相禹(61년 法大卒·본회 부회장)교수가



「남북한 관계와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참석자들로 부터 열띤 찬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대 AMP 자랑스러운 교수상」을 수상한 李교수는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63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영학과장, 경영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후학양성에 크게 헌신해왔다.

금속공학과

신임 회장에 李東寧동문 선출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趙容善)는 지난 4월 10일 논현동 「만리장성」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金澈(56년卒·석진 상호신용금고 사장)·李萬喆(60년卒·前중소기업은행 협력부장)·孟涉(65년卒·크로바스포츠 사장)·崔翔五(67년卒·신우상사 사장)·孔炳採(70년卒·윤영 사장)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李在英(62년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동문에게 「자랑스런 금속동문상」을 시상했다.

또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모교 재료공학부 李東寧



교수(사진)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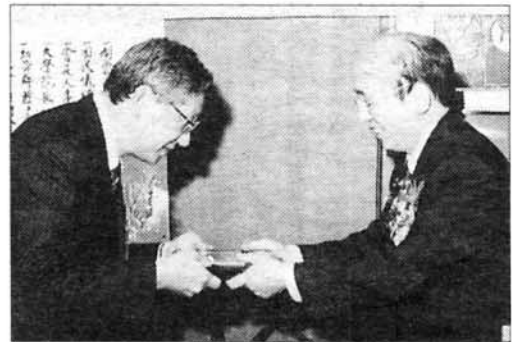
신임 李회장은 61년 모교를 졸업했으며, 71년 美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공학부장, 대한금속학회장으로 활약하면서 관련 학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대학원

禹鍾天교수에게 공로패 전달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圭植)는 지난 4월 20일 모교 연건캠퍼스 임상학연구소 가든부에서 李光魯고문, 金宗西·金相仁·李基春·崔滿麟·金惠熒·朱鍾元·朴貞浩부회장, 모교 閔相基대학원장, 禹鍾天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회가 창립된지 29년이 지나 옛 발자취를 되돌아보니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앞으로도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모



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화를 위해 헌신한 전임 禹鍾天대학원장(사진 左)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새로 발간된 동창회 소식지를 배포했다. (表)

환경대학원

盧隆熙 명예교수 감사패 받아



좌로부터 金學元·黃琪源·李희장·盧隆熙·全錫洪전임회장·車元甲동문.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李廷植)는 지난 4월 6일 강남 프리마호텔에서 全錫洪전임회장, 모교 盧隆熙명예교수, 黃琪源부원장, 金學元국회의원, 서울시의회 車元甲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盧隆熙(52년 法大卒)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안전심의를 통해 2000년

도 결산안 및 2001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했으며,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케이크 절단식을 가졌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盧동문은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오랫동안 후학양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현재 녹색연합 고문, 서울에코클럽(환경원로들의 모임)회장 등을 맡으며 환경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의 근황 소개에 이어 안전심의를 통해 앞으로 매 분기당 1회씩 정기모임을 가지기로 협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金湘圭(74년工大卒·대용산업 전무), 李得雄(74년工大卒·디비엔지니어링 사장), 申駿燮(74년農大卒·영진약품 연구위원), 朴潤福(74년農大卒·한국후지쯔 본부장), 裴圭漢(74년文理大卒·국민대 교수)등문 등이 참석했다.

관악교수테니스회

춘계대회 개최

관악교수테니스회(회장 朴聖炫)는 지난 4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장에서 '2001년도 춘계대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이날 테니스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입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金文基·金善振 동문, 준우승: 朴聖炫·金在弼 동문 △B조 우승: 池東杓·姜昌律 동문, 준우승: 權祺鉉·李京雨 동문.

약학대학

테니스대회로 즐거운 시간 만끽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4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테니스코트에서 대한약사회 關寬植명예회장, 모교 千文宇학장, 金得俊부학장 등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A조에 金博光·李炳星동문, B조에 尹斗石·金祖炯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조 준우승: 趙南春·姜海

錫동문, 3위: 劉永弼·申珍容 동문 △B조 준우승: 沈應基·金泰旭 동문, 3위: 李禮植·千文宇 동문.

공과대학

5월 20일 등산대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林光洙)는 오는 5월 20일 오전 9시 모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정기총회 및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77-0568)

ROTC 12기

졸업 후 처음으로 모임 가져



ROTC12동기회(회장 崔海元)는 지난 4월 24일 서초동 「예

당」음식점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순테니스회

3개조 나눠 건강·우정 재확인

耳順테니스회(회장 全兢烈)는 지난 4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장에서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창립 이후 매년 3회에 걸쳐 경기를 열고 있는 이순테니스회는 이날 교회조와 이순 A·B조로 나누어 시합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교회조 朱樂

元(50년文理大卒)·吳泰烈(56년商大卒)동문과 이순A조 趙勝鉉(49년醫大卒)·金敎成(55년工大卒)동문, 이순B조 金慶洛(64년工大卒)·韓榮成(63년文理大卒)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제33회 정기대회는 현충일인 6월 6일에 가질 예정이다.

(信)



배우는 보람, 나누는 기쁨을
特志獎學會에서 찾아 주십시오.

특지장학금 제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에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기부와 출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 또는 유증, 증여, 상속에 의해 출연자 명의의 특지장학회를 설립·운영하여 출연자 명의로 모교재학생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처 안내

TEL 02) 702-2233 FAX 02) 703-0755

민족의 대학, 학문의 대학인 모교에서 국제사회를 활동무대로 삼아야 할 우리의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조달을 위해 생활전선에서 뛰고, 그것도 어려워 휴학 또는 조기 군입대로 자포자기의 기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일반장학제도 외에 장학사업의 확충과 수혜 대상폭의 확대를 위해 「特志獎學會」제도를 운영하여 장차 이 사회의 동량이 될 후배들을 키우기 위한 장학금 지급과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정

수상

▲白永勳(57년) 大學院卒·한국 산업개발연구원장=지난 4월 2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중소기업연맹(WA-SME) 제20차 총회에서 「중소기업 지도자대상」을 수상함.

▲李仁子(59년) 家政大卒·건국대 교수·한국 의류학회 회장=지난 4월 27일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치료 효과」라는 논문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받음.

▲鄭根謨(59년) 文理大卒·호서대 총장=지난 4월 17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蔣英實선생 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3회 장영실 과학문화상을 받음.

▲高建(60년) 文理大卒·서울시장=지난 3월 30일 국제투명성기구(TI) 말레이시아본부 툰쿠 압둘 아지즈 회장으로 부터 세계청렴인상을 받음.

▲徐日煥(60년) 文理大卒·충남대 교수=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음.

▲李昌九(60년) 師大卒·한양여대 학장=지난 4월 21일 동의대 국제관에서 대한수학회에서 수여하는 2001년 대한수학회상 교육상을 받음.

▲李東寧(61년) 工大卒·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오는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호암재단이 제정한 2001년 호암상 공학상을 받을 예정임.

▲金昌奎(62년) 工大卒·태평양고문=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음.

▲黃海淳(62년) 齒大卒·치과원장·대한치협광주시 고문=지난 4월 7일 제2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李在英(62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음.

▲朴元勳(64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음.

▲李賢秀(64년) 農大卒·삼양제넥스 부사장=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

약장을 받음. ▲閔季植(65년) 工大卒·한국중공업 대표=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음.

▲金容彦(65년) 文理大卒·동서식품 대표=지난 4월 4일 올림피아드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장애인체육대회 유공자 포상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趙南喆(66년) 工大卒·건화엔지니어링 부회장=지난 3월 30일 토목의 날 기념행사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음.

▲李種福(66년) 美大卒·포름디자인 회장=지난 4월 2일 Art Director로서 인천공항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을 받음.

▲李憲宰(66년) 法大卒·前 재정경제부 장관=지난 4월 3일 미국 공공연구재단인 우드로 윌슨 인터내셔널센터가 수여하는 우드로 윌슨상을 받음.

▲韓秀吉(66년) 商大卒·롯데제과 대표=지난 4월 7일 제2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받음.

▲孫郁(67년) 工大卒·삼성종합기술원장=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음.

▲金秀哲(67년) 保大院卒·성형외과원장·保大院同窓會會長=지난 4월 7일 제2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화의 활성화

화를 위한 부산지방 보건향상과 AIDS 예방 활동을 펼쳐온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金榮中(68년) 藥大卒·모교 약



학과 교수)=

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음.

▲金廷九(69년) 工大卒·모교 물리학과 교수=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음.

▲文永學(70년) 工大卒·대화강 재산업 대표=지난 3월 30일 토목의 날 기념행사에서 산업포장을 받음.

▲李榮一(70년) 工大卒·호텔신라 사장=지난 4월 21일 한국호텔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01년 호텔경영대상을 받음.

▲金南容(71년) 工大卒·현대자동차 이사=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음.

▲俞香淑(72년) 藥大卒·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장=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음.

▲黃俊淵(72년) 音大卒·모교 국악과 교수=지난 4월 1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寬齋成慶麟선생의 출연금으로 제정

한 제1회 관재국악상을 수상함. ▲禹誠一(73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음.

▲徐憲濟(73년) 法大卒·중앙대 교수=지난 4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제도 시행 20주년 기념식에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함.

▲金道然(74년) 工大卒·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음. ▲金基文(76년) 自然大卒·포항공대 교수=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음.

▲金永源(79년) 自然大卒·세종대 교수=지난 4월 21일 동의대 국제관에서 대한수학회에서 수여하는 2001년 대한수학회상 논

편집주간식

스승님!

우리 모두가 함께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받음.

▲金在燮(85년) 自然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4월 21일 열린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음.

▲鄭宇植(87년) 工大卒·한국전력기술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책임연구원=지난 4월 13일 제8회 한국원자력기술상 대상(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선정됨.

▲李信雨(91년) 音大卒·모교 작곡과 전임강사=지난 4월 10일 수원 경기도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34회 난파 음악상을 수상함.

▲魚浚善(14기) AMP·한국약품 회장=지난 4월 7일 제2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金龜(3기) EPHPM·대한약사회 부회장=지난 4월 7일 제2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安鎬元(6기) EPHPM·대한한 의사협회 홍보실장=지난 4월 23일 국제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한 제11회 「허균·허난

설현 문학상」 시부문 본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柳致松(53년) 商大卒·前민한당 총재=지난 4월 1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회 제6차 대의원 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됨.

▲金濬浩(56년) 法大卒·코리어나 국제투자자문 회장=최근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International) 고문에 취임했으며, 韓國複寫傳送權 관리센터 감사에 선임됨.

▲李在泉(56년) 法大卒·前동화리스금융 부사장=지난 3월 2일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신설된 한국관광대학 학장에

취임함.

▲鄭然世(57년) 工大卒·한국선급엔지니어링 회장=지난 3월 27일 2001년 海港會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재

선임됨.

▲金鎮福(58년) 醫大卒·인제대 서울백병원 의료원장=최근 타이베이 웨라톤호텔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아임상종양학회

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선출됨. ▲金鎮億(60년) 法大卒·법무법인 김·신&유 대표 변호사=최근 대한중재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됨.

▲柳時烈(61년) 法大卒·전국은행연합회 회장=지난 3월 26일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회에 위촉됨.

▲李壽成(61년) 法大卒·前국무총리=지난 3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민속박물관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취임함.

▲李鎮高(61년) 商大卒·서울산업대 총장=최근 공정거래위 전직·퇴직자 모임인 「공정동우회」 창립총회에서 초

대 회장에 선임됨.

▲崔成泓(62년) 法大卒·주영대사=지난 4월 1일 외교통상부 차관에 임명됨.

▲金昌洙(63년) 工大卒·LG전자 기술원 고문=지난 4월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됨.

▲宋相現(63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최근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추대됨.

▲羅鍾一(63년) 文理大卒·경희대 교수=최근 駐英 대사에 내

정됨.

▲秋圭璋(63년 法大卒·前건교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최근 한국건설경제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됨.

▲李存熙(63년 師大卒·前서울시립대 교수)=지난 4월 19일 서울시 시립박물관장에 임명됨.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최근 대한토목학회 임시총회에서 제34대 회장에 선출됨.

▲許永燮(64년 工大卒·녹십자회장)=지난 4월 17일 전경련 생명산업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임됨.



▲劉洪鍾(64년 法大卒·前현대캐피탈 사장)=지난 4월 9일 삼미특수강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李源浩(65년 法大卒·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지난 4월 1일 한국화섬협회 제19대 회장에 취임함.

▲趙健鎬(66년 法大卒·한국무역협회 부회장)=지난 3월 26일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에 위촉됨.

▲李埰洛(67년 文理大卒·경향



▲金弘經(67년 法大卒·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지난 4월 20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회에서 상근부회장에 선임됨.

▲尹貴涉(68년 商大卒·한국은행 부총재보)=지난 4월 4일 금융결제원 원장에 선임됨.

▲李奎億(68년 商大卒·前산업연구원 원장·아주대 교수)=지난 4월 9일 법무법인 세종 시장경제연구원 초대 원장에 선임됨.

▲柳熙烈(69년 文理大卒·과기부 기획관리실장)=지난 4월 1일 과학기술부 차관에 임명됨.

▲姜熙復(69년 法大卒·前조폐공사 사장)=지난 4월 9일 법무법인 세종 시장경제연구원 대표에 선임됨.

▲金重養(69년 法大卒·소청심사위원회 위원)=지난 4월 20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에 임명됨.

▲盧勳健(69년 法大卒·금융감독원 상임감사)=지난 4월 12일 증권예탁원 주주총회에서 사장에 선임됨.

▲李建世(69년 師大卒·MBC기획국 위원)=지난 3월 8일 MBC아카데미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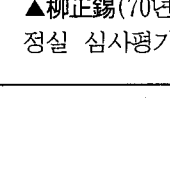
▲李載旭(69년 商大卒·한국은행 국제국장)=지난 4월 4일 한국은행 부총재보에 선임됨.

▲李起澤(69년 齒大卒·대한치과의사협회장)=지난 4월 11일 대만에서 열린 제23차 아세아태평양 치과연맹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金松子(69년 行大院卒·서울지방노동위원장)=지난 4월 1일 노동부 차관에 임명됨.

▲崔棟圭(70년 農大卒·강원도정무부지사)=지난 4월 1일 중소기업청장에 임명됨.

▲柳正錫(70년 法大卒·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지난 4



신문 상무)=지난 4월 1일 경향신문 부사장에 선임됨.

월 4일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1급)에 임명됨.

▲李秀一(70년 法大卒·감사원 사무총장)=지난 4월 9일 한국감정원 원장에 선임됨.

▲盧鈺燮(70년 師大卒·감사원 기획관리실장)=지난 4월 12일 감사원 제1차장에 임명됨.

▲李景台(70년 商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지난 3월 26일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에 위촉됨.

▲李健旭(70년 醫大卒·모교 외과학교실 교수)=최근 대한간담췌외과학회 회장에 선임됨.

▲孫承泰(71년 工大卒·감사원 감사교육원장)=지난 4월 12일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李熙範(71년 工大卒·산자부 자원정책실장)=지난 4월 1일 산업자원부 차관에 임명됨.

▲鄭明洙(71년 文理大卒·UPS 한국지사장)=최근 UPS 대한통운(주) 주총에서 대표이사에 선임됨.

▲黃炳宣(71년 文理大卒·대한매일신보 이사)=지난 4월 9일 대한매일신보 제작이사 겸 새사업추진 단장에 선임됨.

▲金振杓(71년 法大卒·재경부 세제실장)=지난 4월 1일 재정경제부 차관에 임명됨.

▲金熙重(71년 商大卒·경향신문 상무)=지난 4월 1일 경향신문 부사장에 선임됨.

▲梁光姬(72년 看護大卒·적십자간호대학장)=최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간호교육전문대학장협의회 창립총회에 선출됨.

▲金鍾勳(72년 農大卒·매일경제신문 출판국장·本報 論說委員)=지난 3월 26일 매일경제신문 이사에 선임됨.

▲鄭健溶(73년 法大卒·前금융



▲尹厚相(72년 文理大卒·한겨레신문 통일문화연구위원)=지난 4월 2일 한겨레신문 심의실장에 선임됨.

▲南善顯(72년 獸醫大卒·KBS 청주방송총국장)=지난 4월 6일 KBS 방송문화연구원 주간에 선임됨.

▲曹宇鉉(72년 行大院卒·건교부 차관보)=지난 4월 1일 건설교통부 차관에 임명됨.

▲朴敬哲(73년 工大卒·대신C&C 대표)=지난 3월 17일 대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에 선임됨.

▲金周亨(73년 農大卒·제일제당 사장)=지난 4월 17일 전경련 생명산업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됨.

▲安鍾云(73년 農大卒·농림부 기획관리실장)=최근 농림부 차관보에 임명됨.

▲鄭輝泳(73년 農大卒·감사원 제1사무차장)=지난 4월 12일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에 임명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특임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4월 6일 KBS 뉴미디어본부장에 선임됨.

▲朴聖勳(73년 文理大卒·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지난 4월 16일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에 임명됨.

▲柳志昌(73년 文理大卒·민주당 정책전문위원)=지난 4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됨.

▲權五乘(73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4월 12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부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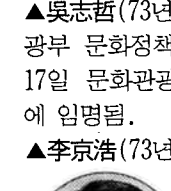
▲吳志哲(73년 法大卒·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지난 4월 17일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李京浩(73년 法大卒·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됨.

▲鄭健溶(73년 法大卒·前금융

▲鄭健溶(73년 法大卒·前금융

▲鄭健溶(73년 法大卒·前금융



바리톤 曹祥鉉동문 독창회

5월 29일 금호아트홀

한국슈베르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바리톤 曹祥鉉(51년 音大卒)동문(사진)이 오는 5월 29일 광화문 금호아트홀에서 「독일 & 한국 예술가곡의 밤」을 테마로 독창회를 개최한다.

曹동문은 그 동안 독일가곡 독창회 16회, 한국가곡 독창회 6회 등 번갈아 연주해오면서 예술가곡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의미를 선보였으며, 한국 예술가곡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볼프, 말러,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을 비롯해 흥남파의 「옛 동산에 올라」, 박태준의 「동무 생각」, 현제명의 「오라」, 이흥렬



의 「코스모스를 노래함」, 조두남의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 하대웅의 「초혼」, 김대현의 「들국화」, 나운영의 「가려나」, 윤용하의 「보리밭」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曹동문의 장녀 조영방(단국대 음대 교수)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는다. (공연문의: 서울뮤직클럽 588-7573)

文綠仙동문 플루트 독주회

5월 27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플루티스트 文綠仙(79년 音大卒)동문(사진)이 오는 5월 27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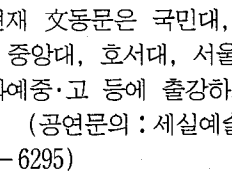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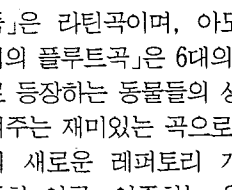
82년 모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Wien Hochschule 플루트 교육학을 수료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文동문은 서울시향·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서울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앙상블 유림의 멤버로 실내악에서도 많은 연주를 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낭만을 넘어 라틴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낭만시대 음악과 라틴음악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어의 「라틴소나타」와 샤커의 「2대의 플루트를 위한

소품」은 라틴곡이며, 아모스의 「6대의 플루트곡」은 6대의 플루트로 등장하는 동물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곡으로 文동문의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과 꾸준히 연구, 연주하는 음악인의 자세를 돋보이게 한다.

현재 文동문은 국민대, 상명대, 중앙대, 호서대, 서울예고, 신화예중·고 등에 출강하고 있다. (공연문의: 세실예술기획 583-6295) (雙)





악협회 수석부 이사장·서울튜티앙상블 리더=지난 5월 1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서울튜티앙상블 제24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安文錫(65년 商大卒·전자정보특별위원장)=지난 3월 15~17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제3차 정부개혁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연설함.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4월 6~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참석, 환경협력사업을 논의했으며, 4월 18~21일 뉴욕에서 열린 제9회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석,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

▲金芝河(66년 文理大卒·명지대 석좌교수·시인)=지난 4월 13~18일 일본을 방문, 재일교포 잡지 「새누리」의 세미나에서 「홍익인간」을 주제로 두 차례

강연함.

▲李鐘哲(66년 文理大卒·국립민속박물관장)=지난 4월 4일 세계 불우아동돕기 성금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탁함.

▲崔國炳(66년 美大卒·한남대 교수)=지난 5월 2~8일 종로구 관훈동 본화랑에서 「꿈나무」「아침의 나라」 등 15점의



작품으로 조각초대전을 가짐.

▲李鍾協(66년 音大卒·중앙대 교수·협 스트링 앙상블 음악감독)=오는 5월 23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협 스트링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임.

▲趙誠愛(68년 美大卒·관화가)=지난 4월 11~17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 인



킹관화공방에서 李貞林(77년 美大卒)·全慶鉦(80년 美大卒)등문과 함께 2001 서울관화 미술제의 일환으로 3인전을 가짐.

▲金鎮洪(68년 師大卒·한국외대 교수)=지난 4월 23일 러시아 야루즈크에서 열린 국제회의

에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IT교육의 중요성」이란 논문을 발표함.

▲洪貞憲(69년 美大卒·추상화가)=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강남구 신사동 예화랑에서 열정(Passion)을 주제로 제 18회 개인전을 가짐.



▲尹美容(69년 音大卒·국립국악원장)=지난 4월 10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개원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가짐.



▲金尙哲(70년 法大卒·변호사·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본부장)=지난 3월 3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1천만명 서명 달성을 기념하여 최근 탈북자 동향과 보호대책 토론회를 개최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대한언론인회 복지기금관리위원)=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대한언론인회가 주최한 「매스컴의 신뢰성」이란 주제의 금강산 선상포럼에 참가함.

▲金龍文(72년 文理大卒·한국보건정보정책



연구원장)=지난 4월 15일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활동의 일환으로 의정부 신라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22일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의 일환으로 고양시 사리현동 「벤엘의 집」을 방문함.

▲鄭用德(73년 農大卒·모교 행



대원 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지난 3월 31일 모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국민 국가의 변동과 행정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鄭愛蓮(73년 音大卒·전남대



교수)=지난 5월 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독창회를 개최, 라흐마니노프의 「Coh(꿈)」, 현제명의 「나물개는 처녀」, 거슈윈의 「Summer Time(여름 날)」, 비제의 「Habanera(하바네라)」 등을 선보임.

▲朴沆律(74년 美大卒·화가)=



지난 5월 2~15일 종로구 관훈동 갤러리 썬&문에서 「Meditation-A dream one dew-drop」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가짐

▲尹永寬(75년 文理大卒·모교



외교학과 교수)=지난 4월 7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순수민간연구기관인 미래전략연구원 창립기념식 및 제1회 월례세미나를 개최함.

▲洪淳美(75년 音大卒·충신대



강사)=지난 4월 15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드뷔시, 쇼팽,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玄在喜(76년 音大卒·세종대



교수)=지난 5월 10일 이원문화센터에서 라흐마니노프, 베토벤, 거슈윈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李忠範(82년 法大卒·변호사·



사단법인 정해복지 이사장)=지난 4월 27일 아시아공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하는 제3회 휠체어 미니마라톤 대회를 개최함.

▲朴瑛根(85년 醫大卒·서울학문의과의원장)=지난 4월 14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서울학문의과의원 개원식을 가짐. (연락처: 053-742-0275)

▲金德龍(88년 美大卒·모교 강사)=지난 4월 4~10일 인사동 공화랑, 4월 11~17일 분당 갤러리 삼성플라자에서 「結-영속의 시간」을 주제로 개인전을 가짐.

▲金在美(88년 音大卒·수원대



검임교수)=지난 4월 28일 한전 아츠폴센터에서 솔레르, 그라나도스,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任美貞(88년 音大卒·재미 피아니스트)=지난 4월 12일, 16일 북한의 제14차 「4월의 봄 예술축전」에 초대받아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함.

▲李石淵(91년 大學院卒·경실련 사무총장)=지난 3월 28일 경찰대학에서 「한국사회운동과 NGO」를 주제로 특강함.

▲高東希(94년 音大卒·첼리스트)=지난 5월



3일 영산아트홀에서 쿠프랭, 슈만,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으로 귀국 첼로

독주회를 가짐.

▲朴尙東(2기 EPHPM·동서한



방병원장·EPHPM동창회장)=지난 4월 14일 서울 강서구 등촌7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무료 진료행사를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내 마음의 詩

나의 어머니

李典九



유년기:

모진전통 참아내며 못난 「나」를 낳으셨네
앞가슴에 꿰물리고 등에 업어 잠재우고
떠놓은물 꿈꿨던 뒷목잡던 안방에서
추울세라 아랫목에 얼을세라 포대기에

품에안아 채운으로 내 몸을 지켜주고
보리방아 찼으면서 틈틈이 기저귀채워
다듬이질 하면서도 사이사이 꿰물리며
금야옥야 길러주신 어머니의 정성일세

소년기:

무명바지 곱게입혀 책보에 도시락에
코홀리개 개구쟁이 손불잡고 등교할 때
선생님 말잘듣고 공부 잘 하라시던
어머니의 인자하신 그모습이 아련하네

육이오 전쟁시절 남쪽으로 피난중에
화물칸 지붕위에 자리잡고 내려갈 때
안쪽으로 나앉히고 당신은 바깥쪽에
떨어져서 죽더라도 내가대신 죽으리라
어머니의 회생어린 그사랑이 가이없네

청년기 I:

고등학교 졸업반에 대학입시 공부할 때
시시때때 남편수발 시부모님 공경하며
낮에는 들어나가 보리밭 김을매며

밤마다 청수마쳐 향불피고 기도하며
오뉴월에 참쌀갠 양복에 들러볼 듯
명년에 우리아들 칠백불개 하옵소서
틈마다 절에가서 부처님께 불공하던
어머니의 정성으로 명문대학 들어갔네

청년기 II:

참한구수 전보시고 장가들여 놓은후에
동네방네 자랑하며 그렇게도 좋아하신
천진난만 그모습은 천사의 모습이라
남의 집 시어머니 며느리 시집살이

남의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홍보지만
며느리를 친딸같이 사랑을 흠뻑주고
며늘아기 칭찬하며 온동네에 자랑하던
천사같은 어머니와 한평생을 살으리라

장년기 I:

고달픈 이민생활 타국에서 시작할 때
아들 며느리 일터에서 올때까지 밤늦도록
TV켜면 장남이요 라디오켜면 귀머거리
밖에서는 반병어리 이웃들과 손짓발짓

먼하늘만 쳐다보며 나는새를 바라보며
등어리가 휘도록 손자새끼 업어길러
손등이 터지도록 밥지으며 집안살림
이세상에 어느식모 이다지도 혹사할까?

장년기 II:

이민생활 이삼십년 번개같이 지나갔네
업혀온 아들놈들 대학을 졸업하고
돈도벌고 집도짓고 자가용도 번듯하게
사장님 회장님에 우쭐대며 살아보고

어머니 모셔놓고 호강시켜 드려볼까?
그러나 어이하리 늙으시고 병이들어
좋은집도 못보시고 좋은차도 못타시고
다시는 못모실길 저세상에 가셨다오

李典九(64년 農大卒)뉴욕골프센터 사장.

美동부 문인협회 이사, 뉴욕지부동창회 이사장.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
다.

* 안진용(93년 農生大卒)군·

한상희 양=5월 19일 11시.

* 김용범(91년 音大卒)군·최

윤정 양=5월 19일 14시.

* 노경덕(97년 師大卒)군·엄

소정(99년 師大卒)양=5월

20일 12시 30분.

* 조영호(95년 工大卒)군·최

선영 양=5월 20일 14시.

* 권순호(01년 工大卒)군·김

현정 양=5월 20일 15시 30

분.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우리라 생각되오나 동창회보 구독료라고 생각하시고, 회비 납부를 조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理事: 2001년 3월 27일~2001년 3월 28일·一般: 2001년 3월 27일~2001년 3월 29일〉

관악회

▲이 사 金秉順= 30만원

상임이사

▲李義淑가정대동창회장= 20만원
▲李成九교대원동창회장= 20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이영두⁷⁷

◇家政大學

▲백희영⁶⁹

◇看護大學

▲김화중⁶⁷ ▲박명자⁶⁶

◇經營大學

▲김정래⁷⁶ ▲정태전⁹² ▲허일섭⁷⁷

◇工科大學

▲강기세⁶⁰ ▲구영창⁵² ▲권순영⁵⁶
▲권오현⁷⁵ ▲김명근⁵⁷ ▲김석주⁵⁴
▲김석철⁶⁶ ▲김영희⁵³ ▲김종의⁶⁵
▲김희재⁶⁰ ▲문수동⁷² ▲민정식⁵⁵
▲박금철⁵¹ ▲선우정호⁶⁶ ▲성기초⁵⁵
▲양현승⁶² ▲오화석⁵⁵ ▲윤 무⁶⁵
▲윤석민⁷⁷ ▲윤우석⁶⁷ ▲윤종용⁶⁶
▲이 철⁷² ▲이계관⁵⁰ ▲이광노⁵¹
▲이덕선⁶⁵ ▲이상호⁷⁰ ▲이원국⁵²
▲이종현⁵¹ ▲이창갑⁵⁰ ▲이형도⁶⁷
▲이호현⁵⁵ ▲전상백⁵⁷ ▲정경진⁵⁷
▲정영철⁶⁵ ▲정영희⁶⁵ ▲조명호⁷⁸
▲조병우⁶⁴ ▲채방은⁷⁰ ▲최승주⁶⁰
▲최재철⁵⁶ ▲최창영⁶⁹

◇農科大學

▲김남용⁵⁷ ▲김택구⁷⁰ ▲백정기⁷²
▲송종관⁵⁶ ▲심재철⁶³ ▲이규승⁷¹
▲이현수⁶⁴ ▲임경순⁵⁸ ▲장정식⁶⁵
▲장휴동⁶³ ▲전용화⁵¹ ▲허문희⁵⁴

◇文理科大學

▲강만식⁵⁵ ▲구범모⁵⁶ ▲김경한⁶⁸
▲김두진⁶⁹ ▲김두희⁵² ▲김상진⁴⁹
▲김상하⁴⁹ ▲문명호⁶⁴ ▲박상대⁶⁰
▲박성철⁵⁷ ▲박종규⁶¹ ▲박희주⁵⁹
▲신용하⁶¹ ▲신호순⁶¹ ▲윤재천⁷²
▲윤천주⁴⁷ ▲이성재⁶³ ▲이현조⁵⁷
▲인태오⁶¹ ▲장준성⁵⁹ ▲채문식⁴⁸
▲한갑수⁵⁶ ▲홍사덕⁶⁸

◇美術大學

▲백문기⁵⁰

◇法科大學

▲강신원⁷⁶ ▲강원일⁶³ ▲고문승⁶³
▲구자춘⁵⁸ ▲권동렬⁶³ ▲김봉환⁶⁵
▲김성수⁶⁵ ▲김영근⁵⁹ ▲김영무⁶⁴
▲김운옥⁷¹ ▲김정기⁷⁹ ▲김창준⁵⁸
▲김형배⁵⁵ ▲김희근⁷⁷ ▲노신영⁵⁴
▲문복주⁷² ▲문인구⁵⁰ ▲문정두⁶⁴
▲박만호⁶² ▲박무용⁶⁸ ▲박병희⁵⁶

▲박용상⁶⁷ ▲박재권⁷³ ▲박효성⁶⁵
▲배상오⁶⁹ ▲선우종원⁴¹ ▲심규철⁸⁰
▲양 영⁶⁶ ▲양동신⁷² ▲유창종⁶⁹
▲유희열⁶³ ▲이대형⁶² ▲이무룡⁶⁵
▲이복영⁶⁶ ▲이상형⁷⁷ ▲이재후⁶²
▲임광수⁶⁶ ▲장주일⁵⁹ ▲정경용⁶⁹
▲정해창⁶⁰ ▲최만립⁶⁴ ▲최원현⁷⁸
▲한동우⁷⁰ ▲한승희⁶¹ ▲현병무⁵⁶

◇師範大學

▲김하준⁷⁷ ▲윤용혁⁶⁴ ▲이기태⁶⁵
▲이석우⁶⁴ ▲정만영⁶⁷ ▲지태성⁷⁹
▲홍승직⁴⁹

◇商科大學

▲강경만⁵⁸ ▲강승구⁶⁹ ▲고경식⁶⁷
▲구정회⁶¹ ▲김영규⁵⁹ ▲김영식⁶¹
▲김영환⁵⁹ ▲김원기⁵⁰ ▲김윤기⁶⁵
▲김종서⁶³ ▲김현근⁶⁷ ▲문대원⁷⁵
▲문영도⁵⁹ ▲문철한⁶⁰ ▲박영일⁶³
▲박영조⁶⁵ ▲박정식⁶³ ▲박정흠⁶⁴
▲서덕규⁵⁸ ▲서주성⁴⁷ ▲성기호⁶⁴
▲송주식⁵² ▲신인식⁶⁴ ▲안명수⁶⁴
▲오창규⁶⁵ ▲우봉형⁶⁵ ▲원용훈⁵⁷
▲원우식⁵⁶ ▲유병인⁶⁴ ▲윤영석⁶⁴
▲이병규⁶⁷ ▲이상기⁶¹ ▲이성태⁶⁸
▲이영택⁶⁴ ▲이용우⁶⁵ ▲이일훈⁶⁰
▲이주찬⁵⁹ ▲이진방⁷¹ ▲이태승⁴⁴
▲이태환⁶² ▲전영완⁵⁶ ▲진영목⁷⁴
▲최성식⁶⁵ ▲홍성표⁶⁵ ▲홍영기⁶¹
▲홍재형⁶⁰

◇獸醫科大學

▲이창구⁶³

◇藥學大學

▲공영석⁶⁷ ▲김진우⁶⁸

◇醫科大學

▲강형룡⁴⁸ ▲고계환⁵⁷ ▲김경식⁷⁴
▲김관수⁷⁸ ▲김용락⁶⁶ ▲김용진⁵³
▲김종선⁶⁶ ▲김주현⁷¹ ▲문대준⁵⁰
▲박문갑⁶³ ▲박양실⁶⁰ ▲배대경⁷⁰
▲서경필⁶⁷ ▲성기호⁶⁶ ▲신창재⁷⁸
▲신현정⁶⁹ ▲심영수⁶⁹ ▲이문기⁴⁹
▲이문호⁴⁶ ▲이용국⁶⁵ ▲이종구⁵⁷
▲정규병⁷¹ ▲조성수⁷⁶ ▲한정철⁶²

◇齒科大學

▲김기국⁷⁰ ▲김현풍⁶⁶ ▲박인자⁶⁹
▲백성기⁷⁸ ▲양후열⁶⁰ ▲유태영⁶⁹
▲이재윤⁶² ▲임용준⁷² ▲임철중⁶⁷
▲조유동⁵⁹ ▲한국영⁵⁰

◇經營大學院

▲김민수⁷⁵ ▲박건호⁶⁹ ▲박무익⁷⁰
▲이철우⁷⁰

◇保健大學院

▲구성희⁶⁹ ▲손경애⁷⁶ ▲전금자⁷⁴

◇司法大學院

▲김창식⁶⁹

◇新聞大學院

▲곽찬호⁷¹ ▲김태문⁷³

◇行政大學院

▲손선규⁶⁴ ▲윤일균⁶⁹

◇環境大學院

▲최길대⁶²

◇최고경영자과정

▲박인상⁷⁸ ▲장태완⁶ ▲전용택⁶¹

◇국가정책과정

▲김정숙⁶⁷

일 반

◇人文大學

▲강인식⁶⁴ ▲김국현⁷⁶ ▲김범준⁶⁰
▲김승환⁶⁷ ▲김지원⁶⁷ ▲김종주⁷⁹
▲김찬식⁶⁴ ▲김형구⁷⁷ ▲문상원⁷⁶
▲박순문⁶⁰ ▲박혜경⁶⁸ ▲손정희⁶⁶
▲송미영⁷⁷ ▲신미경⁹⁰ ▲신정규⁷⁹
▲우순조⁶⁵ ▲윤대근⁶⁵ ▲윤지연⁶⁹
▲윤해섭⁶⁴ ▲이수은⁶⁹ ▲이일환⁷⁷
▲이주형⁶⁴ ▲이한중⁷⁸ ▲이화연⁶⁸
▲장낙도⁶⁹ ▲장소원⁶⁴ ▲전은옥⁶⁹
▲조성은⁹² ▲조용근⁷⁹ ▲조인식⁶⁷
▲최민경⁶⁸ ▲최인환⁶¹ ▲최태영⁶⁰
▲광철호⁶⁴ ▲홍성범⁶³

◇社會科學大學

▲구길모⁹⁵ ▲구윤철⁶⁶ ▲구자용⁶⁹
▲권운구⁹⁸ ▲김경용⁹⁶ ▲김규연⁹⁵
▲김대희⁶⁵ ▲김서유⁶⁶ ▲김선영⁹⁵
▲김성권⁶⁴ ▲김용대⁷⁹ ▲김인수⁸⁸
▲김정영⁹² ▲김태식⁶² ▲김한정⁶⁹
▲남승배⁶⁰ ▲노형식⁶⁶ ▲문상현⁹²
▲박 현⁶⁶ ▲박미영⁶⁸ ▲박병룡⁶⁴
▲박병훈⁶⁶ ▲박준서⁶⁴ ▲박준식⁶⁶
▲배종하⁷⁹ ▲서의근⁶⁵ ▲성은식⁷⁸
▲손신명⁶² ▲신인성⁶¹ ▲염주영⁶¹
▲오규택⁶¹ ▲오동택⁶⁷ ▲오재영⁶⁸
▲유동익⁶¹ ▲유석철⁶⁵ ▲유재한⁷⁷
▲이남우⁶⁶ ▲이민호⁶⁴ ▲이상권⁷⁹
▲이수열⁶⁹ ▲이영식⁶⁵ ▲이용걸⁶⁰
▲이재협⁶⁶ ▲이종은⁶⁷ ▲이주형⁷⁶
▲이창일⁶⁵ ▲이희재⁷⁷ ▲장원영⁶¹
▲전병현⁷⁷ ▲정성운⁹² ▲정영록⁶¹
▲정재호⁷⁷ ▲제승완⁹⁵ ▲제정원⁹⁵
▲조 신⁶² ▲조소라⁶³ ▲조학수⁷⁶
▲주용석⁶⁷ ▲주진혁⁶¹ ▲차용호⁶⁰
▲최낙민⁶⁷ ▲최영삼⁶⁷ ▲최영일⁶⁴
▲최재배⁶⁶ ▲최해연⁶⁴ ▲최희덕⁶⁷
▲허인정⁶⁵ ▲현무성⁶⁴ ▲홍기두⁷⁸
▲황기호⁶² ▲황성준⁶⁷ ▲황성훈⁶⁸
▲황정욱⁶⁹ ▲황철수⁶⁰

◇自然科學大學

▲강대승⁶⁸ ▲강현모⁶³ ▲고광일⁹⁸
▲고형석⁶⁵ ▲구자용⁶¹ ▲권창욱⁹⁹
▲금종배⁶⁰ ▲김건우⁶⁹ ▲김경국⁹⁹
▲김광준⁶¹ ▲김성은⁶⁶ ▲김세기⁹⁰
▲김승주⁶⁹ ▲김영규⁹⁷ ▲김용백⁶⁹
▲김우식⁶⁹ ▲김은식⁶⁷ ▲노동진⁹⁴
▲류성언⁶⁴ ▲박기석⁶⁶ ▲박영아⁶³
▲박지용⁶³ ▲박현국⁶⁷ ▲서승남⁷⁷
▲양명룡⁷⁸ ▲엄태경⁶⁸ ▲이상구⁶⁵
▲이신두⁶⁰ ▲이완호⁷⁹ ▲이찬서⁶⁷
▲이태림⁶¹ ▲이한복⁶⁰ ▲이한형⁶⁰
▲임춘호⁷⁷ ▲임태순⁶⁴ ▲장종만⁷⁶

▲장태홍⁶⁵ ▲정 황⁷⁷ ▲정동주⁶⁹
▲정선희⁶² ▲정원교⁷⁷ ▲조관호⁷⁸
▲조동원⁷⁸ ▲조창제⁶⁵ ▲최윤경⁶⁶
▲최중수⁶⁹ ▲한지숙⁹² ▲현윤정⁶⁴
▲황열순⁶⁰ ▲황찬용⁶⁵

◇家政大學

▲김옥련⁶² ▲김윤숙⁶⁰ ▲김혜경⁶²
▲김효순⁶² ▲박경희⁷⁷ ▲박란정⁶⁰
▲박영애⁷³ ▲박혜선⁷⁶ ▲신현숙⁷⁶
▲유혜경⁶¹ ▲윤정희⁶⁴ ▲이남희⁷³
▲이영희⁷⁹ ▲이용호⁶² ▲이정선⁹²
▲임인순⁶² ▲전옥경⁶⁸ ▲전임호⁶⁵
▲정태숙⁶⁴ ▲지금수⁶⁰ ▲최경희⁶³
▲최민자⁷⁸ ▲최선아⁶⁷ ▲최영경⁶⁸
▲표은경⁷⁸ ▲현혜정⁶⁶ ▲홍경자⁶²

◇看護大學

▲강명화⁶⁸ ▲고혜명⁶⁹ ▲김기희⁶⁹
▲김복순⁶⁵ ▲김효신⁶⁶ ▲남혜경⁶³
▲목안근⁶⁹ ▲박선규⁷⁸ ▲백형자⁶²
▲서춘원⁷⁰ ▲신연희⁶⁸ ▲유희선⁶¹
▲윤영희⁷⁹ ▲이유정⁶⁰ ▲이은정⁶⁴
▲이은주⁹⁴ ▲장순희⁶⁹ ▲정명옥⁶⁷
▲조동란⁷⁰ ▲최계숙⁶⁸ ▲태영숙⁷⁵

◇經營大學

▲강장구⁶⁶ ▲강준수⁷⁹ ▲권혁성⁶¹
▲김기홍⁹⁷ ▲김명애⁶⁹ ▲김진진⁶¹
▲김영봉⁶⁸ ▲김우택⁶⁷ ▲김장희⁶⁰
▲김지용⁶⁸ ▲김태원⁶⁵ ▲김홍섭⁶³
▲남기명⁶² ▲류상기⁶² ▲문정환⁶⁵
▲박용립⁷⁷ ▲박철수⁶¹ ▲서준호⁹⁰
▲성태홍⁶⁷ ▲송모현⁶⁷ ▲신동민⁶⁸
▲신동환⁶² ▲신재용⁶⁴ ▲유승권⁶¹
▲유태우⁶³ ▲이용수⁶⁷ ▲이준원⁶⁸
▲임준록⁶¹ ▲전성룡⁶⁶ ▲정용재⁶⁷
▲정원구⁶⁵ ▲조 협⁶⁵ ▲조도근⁷⁸
▲조성문⁶¹ ▲조의규⁶⁰ ▲최창목⁶⁶
▲한정록⁶⁰ ▲한종철⁶³

◇工科大學

▲강국준⁷⁶ ▲강근배⁷⁴ ▲강석봉⁶⁰
▲강승무⁶⁹ ▲강승묵⁶⁸ ▲강창수⁶³
▲강춘식⁵⁹ ▲강태윤⁷⁹ ▲강태호⁷²
▲강형식⁶⁵ ▲강효순⁶⁸ ▲강희태⁶⁴
▲고인준⁷² ▲고일룡⁶⁷ ▲공태근⁶⁵
▲곽태근⁷¹ ▲구원희⁶² ▲권기득⁷⁷
▲권오웅⁷⁸ ▲권일건⁶² ▲기창돈⁶⁴
▲길득영⁶⁸ ▲김경민⁷⁸ ▲김경석⁶²
▲김영욱⁶⁵ ▲김경호⁶⁶ ▲김관형⁶³
▲김광은⁶⁷ ▲김광준⁷⁶ ▲김광현⁶⁸
▲김구관⁶⁷ ▲김기남⁶¹ ▲김기동⁷⁴
▲김기순⁷⁶ ▲김기준⁶¹ ▲김대균⁶⁸
▲김대현⁷⁴ ▲김도영⁶⁵ ▲김동규⁶⁴
▲김동수⁶⁷ ▲김동훈⁶⁰ ▲김명환⁷³
▲김무조⁶³ ▲김문순⁶⁶ ▲김병교⁶⁹
▲김병규⁵⁰ ▲김병욱⁶⁰ ▲김병태⁷³
▲김병형⁷² ▲김상용⁶⁸ ▲김선국⁶⁹
▲김성관⁶¹ ▲김세영⁷⁴ ▲김세일⁶⁶
▲김수현⁷⁸ ▲김신정⁶⁵ ▲김안구⁷³
▲김연식⁶⁶ ▲김영문⁶⁰ ▲김영인⁶²
▲김영철⁶⁹ ▲김영춘⁶⁵ ▲김영현⁷⁹
▲김영희⁶⁶ ▲김용길⁶⁶ ▲김용길⁶⁰
▲김용태⁶⁷ ▲김원백⁷³ ▲김원수⁶⁵
▲김윤규⁶³ ▲김윤환⁶⁴ ▲김인섭⁶⁵
▲김인영⁶² ▲김인영⁷⁶ ▲김인태⁶²
▲김인호⁹⁶ ▲김재봉⁷³ ▲김재선⁶⁶

▲김재업⁹¹ ▲김재영⁹³ ▲김정덕⁷⁶
▲김정진⁷⁷ ▲김제욱⁷⁷ ▲김종각⁶⁵
▲김종구⁷² ▲김종민⁷⁸ ▲김종성⁵⁴
▲김종원⁷⁸ ▲김중환⁶⁴ ▲김중환⁶⁷
▲김진환⁶⁴ ▲김창섭⁶⁵ ▲김채식⁶⁸
▲김철호⁷⁶ ▲김철희⁶⁴ ▲김춘고⁶⁸
▲김태정⁷³ ▲김태형⁶⁸ ▲김필규⁶⁷
▲김향준⁷⁷ ▲김현진⁶⁵ ▲김형기⁶⁵
▲김호겸⁷⁵ ▲김홍훈⁶⁷ ▲김희재⁶⁶
▲남광문⁶⁵ ▲남궁옥⁴⁹ ▲남기영⁶¹
▲남기환⁶⁴ ▲남동익⁷⁰ ▲남창준⁵²
▲노승택⁶⁶ ▲도일웅⁶⁶ ▲류세열⁹⁰
▲류영석⁹¹ ▲문우택⁶¹ ▲문종규⁶⁴
▲민경훈⁹³ ▲민현석⁸⁸ ▲박경호⁷⁷
▲박광표⁶⁴ ▲박무근⁶⁴ ▲박민우⁷⁴
▲박봉업⁷⁵ ▲박상덕⁷⁶ ▲박상진⁷³
▲박상표⁵⁹ ▲박선원⁷⁰ ▲박성규⁷⁵
▲박순구⁹⁸ ▲박순길⁷⁹ ▲박승일⁶⁵
▲박승준⁶⁸ ▲박영준⁷⁵ ▲박영춘⁶⁶
▲박용기⁷⁵ ▲박용철⁷⁸ ▲박용호⁶⁷
▲박원영⁷² ▲박은철⁷⁰ ▲박의승⁷⁷
▲박의종⁶⁵ ▲박재범⁶² ▲박재원⁶⁶
▲박정수⁶⁶ ▲박종렬⁷⁸ ▲박종태⁵²
▲박추천⁷² ▲박종근⁶⁷ ▲박태성⁸⁰
▲박태수⁶¹ ▲박호일⁸⁰ ▲방우섭⁶⁵
▲배정희⁶⁹ ▲배형식⁶⁵ ▲백남성⁶⁸
▲백남식⁷² ▲백덕현⁶⁷ ▲백만기⁷⁶
▲백사익⁴² ▲백성환⁴⁸ ▲백영방⁵⁹
▲백원장⁶⁴ ▲서동운⁴⁹ ▲서완석⁶⁴
▲서완수⁷³ ▲서정환⁵⁸ ▲서태왕⁶⁴
▲설원희⁶⁴ ▲설학인⁶⁷ ▲성대경⁶¹
▲성일현⁶⁴ ▲손창규⁶³ ▲손효원⁷⁵
▲송광옥⁷⁰ ▲송기석⁶² ▲송대호⁷²
▲송미정⁶⁸ ▲송우길⁶⁴ ▲송운덕⁷⁸
▲송재규⁵⁹ ▲송창근⁶⁹ ▲송태영⁶⁹
▲송한섭⁵⁵ ▲송홍빈⁶⁸ ▲신동용⁶⁸
▲신동주⁶³ ▲신동현⁴⁹ ▲신원종⁷⁵
▲신희균⁶¹ ▲심종섭⁶⁷ ▲안광열⁶⁸
▲안기원⁷⁰ ▲안동렬⁴⁵ ▲안명주⁵⁶
▲안조영⁷⁶ ▲안희경⁶⁸ ▲양영호⁶⁹
▲양원호⁶¹ ▲양진목⁹⁹ ▲양홍석⁴⁷
▲어영담⁶⁹ ▲엄근용⁶¹ ▲엄승호⁶²
▲여상련⁶³ ▲여태승⁶⁶ ▲염희고⁶²
▲오상운⁹² ▲오상호⁵⁵ ▲오수익⁶⁸
▲오승은⁷⁹ ▲오양섭⁶⁵ ▲오장수⁷⁸
▲오재희⁶⁶ ▲오찬현⁷⁹ ▲오희선⁶⁶
▲우상렬⁵⁶ ▲유관섭⁶² ▲유규열⁷⁹
▲유무영⁶⁴ ▲유용석⁶¹ ▲유일상⁶⁷
▲유항근⁷⁴ ▲윤명진⁷³ ▲윤삼훈⁶⁸
▲윤영수⁴⁷ ▲윤용규⁶¹ ▲윤익성⁶⁶
▲윤재강⁵² ▲윤종규⁶⁵ ▲윤종만⁵⁶
▲윤창빈⁷⁸ ▲윤철수⁷⁸ ▲윤한상⁵³
▲이경원⁶⁶ ▲이경훈⁶⁵ ▲이광성⁷⁰
▲이규생⁶¹ ▲이동관⁶³ ▲이명조⁶⁸
▲이민규⁶⁶ ▲이민종⁶³ ▲이방원⁷⁹
▲이범철⁶⁷ ▲이병길⁶⁵ ▲이병하⁷³
▲이봉렬⁶⁸ ▲이봉우⁷⁹ ▲이상근⁷⁵
▲이상래⁸⁸ ▲이상린⁵⁹ ▲이상식⁶⁴
▲이상현⁷⁴ ▲이상현

▲이정규68 ▲이제근62 ▲이종남64
▲이종남77 ▲이종무91 ▲이종웅67
▲이주형91 ▲이준희71 ▲이지수98
▲이진희82 ▲이찬식79 ▲이찬주55
▲이창우71 ▲이청룡65 ▲이충화78
▲이팔갑83 ▲이한우94 ▲이혁재70
▲이현모80 ▲이현석98 ▲이현형77
▲이현호64 ▲이현호91 ▲이형수57
▲이호선95 ▲이희승66 ▲이희영71
▲임광수80 ▲임명찬92 ▲임서환74
▲임석현95 ▲임준재64 ▲임창우71
▲장경환57 ▲장기석92 ▲장기주47
▲장성익90 ▲장세동89 ▲장옥룡66
▲장준근90 ▲장준언83 ▲전병근94
▲전은택99 ▲전주홍69 ▲정대식96
▲정덕조51 ▲정명채89 ▲정방언77
▲정상열80 ▲정영근85 ▲정영일68
▲정원교73 ▲정유나82 ▲정윤진77
▲정재근78 ▲정재수81 ▲정종모86
▲정준식61 ▲정준희65 ▲정진복81
▲정진성58 ▲정창무83 ▲정충시76
▲정대민98 ▲정대영75 ▲정택원79
▲정현모69 ▲조규담57 ▲조규화55
▲조남일74 ▲조병근75 ▲조병덕57
▲조상연94 ▲조석재64 ▲조성파86
▲조영호71 ▲조용철52 ▲조용훈82
▲조응준79 ▲조익식96 ▲조정호65
▲조정호99 ▲조한모61 ▲조현우87
▲조형국76 ▲주길돈58 ▲주재휘79
▲진조철80 ▲채 철65 ▲채규일96
▲천의영85 ▲최 철81 ▲최 훈67
▲최 훈82 ▲최갑석55 ▲최근모64
▲최달우75 ▲최돈구75 ▲최동규70
▲최두일79 ▲최민규81 ▲최상기78
▲최수강77 ▲최승호96 ▲최안분53
▲최영태74 ▲최완철77 ▲최용준83
▲최원은48 ▲최유성98 ▲최재병56
▲최진우60 ▲최철준68 ▲최해운77
▲최홍렬89 ▲편영준81 ▲편종근70
▲하상달74 ▲한동수83 ▲한무영77
▲한상규78 ▲한상명82 ▲한승환83
▲한인철88 ▲한장섭78 ▲한창석72
▲한형상82 ▲허 변57 ▲허 환67
▲허영철74 ▲허영호75 ▲허완수80
▲현재수76 ▲홍규식86 ▲홍석우78
▲홍선표67 ▲홍성일70 ▲홍성철91
▲홍재훈65 ▲홍종재78 ▲홍홍희65
▲황선국69 ▲황선환86 ▲황의성87

◇農科大學

▲강 은84 ▲강대건61 ▲강영선82
▲강인평59 ▲구능원60 ▲권명구72
▲권승룡69 ▲권태일79 ▲권원진88
▲김갑덕50 ▲김관수55 ▲김기렬67
▲김대경55 ▲김동익56 ▲김병기72
▲김상기65 ▲김수태70 ▲김숙자66
▲김영도75 ▲김영복79 ▲김원수62
▲김원훈58 ▲김정기61 ▲김정빈65
▲김정혜65 ▲김종무63 ▲김진근61
▲김진복59 ▲김진석75 ▲김진수75
▲류기락88 ▲류기승63 ▲류영선64
▲민병운56 ▲박경석66 ▲박광욱65
▲박상진63 ▲박선현76 ▲박성학66
▲박승걸57 ▲박장렬57 ▲박찬규69
▲배근성84 ▲백유현60 ▲백창영73
▲변유식64 ▲서득성64 ▲서원호78
▲설동섭57 ▲성삼섭65 ▲신동완64
▲신유성97 ▲신윤중50 ▲신패승73
▲안효창83 ▲오상훈47 ▲오승환61
▲오학영61 ▲우관희67 ▲우무일68
▲우상호65 ▲우성식86 ▲우정식53
▲원종영66 ▲유범식64 ▲유부열74
▲유성현64 ▲유재영64 ▲유성준93
▲윤우성61 ▲윤진영70 ▲이경국82
▲이계진60 ▲이계홍62 ▲이기조67

▲이기춘49 ▲이명동59 ▲이명수83
▲이병래86 ▲이병목69 ▲이병현66
▲이상구58 ▲이상선56 ▲이상인65
▲이석건70 ▲이석순66 ▲이성우73
▲이수정69 ▲이신기64 ▲이연경98
▲이영열60 ▲이용득57 ▲이윤희72
▲이윤희64 ▲이인형61 ▲이장섭57
▲이재원56 ▲이정호76 ▲이종만80
▲이중기60 ▲이창근64 ▲이창호59
▲이창희82 ▲이한강73 ▲이형주70
▲이화형68 ▲이희영79 ▲임병기54
▲임형백93 ▲장낙연59 ▲전기영59
▲전석수66 ▲전유현75 ▲정선욱95
▲정을규65 ▲조규욱68 ▲전정웅66
▲최동열55 ▲최상근55 ▲최승조79
▲하현철88 ▲한상룡76 ▲허동명96
▲허유만71 ▲현학범61 ▲홍순룡71
▲황갑수52

◇文理科大學

▲강기년55 ▲강상규73 ▲강석명61
▲고정택66 ▲권오득68 ▲권태승60
▲김경화73 ▲김광식63 ▲김규완60
▲김기근73 ▲김기현57 ▲김덕룡56
▲김덕현68 ▲김명수65 ▲김문수64
▲김상규72 ▲김상무60 ▲김상주66
▲김석도63 ▲김석산58 ▲김양배63
▲김연숙72 ▲김영노60 ▲김영필56
▲김영환71 ▲김완규48 ▲김용남67
▲김용년58 ▲김용성68 ▲김용수63
▲김용혜75 ▲김인자63 ▲김일송68
▲김정숙62 ▲김정희69 ▲김종진62
▲김주철67 ▲김중하61 ▲김진석65
▲김춘안70 ▲김학주56 ▲김현일64
▲김호경64 ▲김홍수74 ▲남이웅72
▲남정길65 ▲노혜경67 ▲노태균67
▲박경호66 ▲박금자70 ▲박두희57
▲박상식71 ▲박영소73 ▲박영애60
▲박옥줄52 ▲박용호53 ▲박종철64
▲박종규73 ▲박창고54 ▲박한제73
▲박형규67 ▲박홍원49 ▲배인준74
▲배인하66 ▲백낙운60 ▲백수웅69
▲서병국57 ▲서의규72 ▲성기중64
▲성명제58 ▲송 민63 ▲송규정67
▲송원일62 ▲송주상74 ▲송희성60
▲신병진57 ▲신영철61 ▲신준희61
▲신화영59 ▲심 혁71 ▲심의도65
▲안재현71 ▲어한수59 ▲여무종72
▲오권태62 ▲오선치랑66 ▲오세영68
▲우종택53 ▲원인기70 ▲유광석65
▲유순애74 ▲유영근67 ▲유재홍67
▲유정렬52 ▲유치조53 ▲이건무69
▲이광렬75 ▲이덕길66 ▲이동수62
▲이동우58 ▲이명구47 ▲이명해63
▲이문구65 ▲이범주68 ▲이병렬50
▲이병철62 ▲이석희48 ▲이선숙73
▲이영재66 ▲이재근61 ▲이재호60
▲이정세57 ▲이정숙57 ▲이종록47
▲이종명58 ▲이주한60 ▲이진성75
▲이해남70 ▲임동규59 ▲임선재56
▲임성기66 ▲임영룡60 ▲임인철57
▲장동식55 ▲장영섭75 ▲장정형67
▲전도율59 ▲전두하52 ▲전병식66
▲전종갑68 ▲정광화70 ▲정낙찬73
▲정병후49 ▲정삼운68 ▲정영섭74
▲정용재50 ▲정일성63 ▲정재봉64
▲정종운65 ▲정태식61 ▲정태훈53
▲조광원66 ▲조성식46 ▲조요한53
▲조용주72 ▲조유전66 ▲조재두56
▲조재신64 ▲조현영63 ▲지경홍64
▲차주환52 ▲채규희47 ▲채영수72
▲최경영74 ▲최동락57 ▲최동진58
▲최명근61 ▲최문석67 ▲최선일63
▲최연대57 ▲최영희69 ▲최용찬59
▲한승주62 ▲한영주72 ▲한일상68

▲허 승62 ▲허두표64 ▲허우금70
▲홍성진57 ▲홍승재71 ▲홍영희71
▲홍원희73 ▲황병국63 ▲황병선71
▲황선필64

◇美術大學

▲감우성93 ▲강수인94 ▲공태환59
▲곽대영92 ▲곽한익57 ▲길준경82
▲김경숙67 ▲김관섭92 ▲김선영88
▲김수영94 ▲김연미87 ▲김제응64
▲김진경86 ▲김창수86 ▲김춘자67
▲김현미93 ▲김현영99 ▲김혜림85
▲남 철62 ▲남혜숙66 ▲박광일89
▲박석환57 ▲박영애61 ▲박요원60
▲박종대67 ▲박향숙62 ▲백수현96
▲백순실74 ▲변진의65 ▲부수언61
▲서명선88 ▲서영숙61 ▲서현우98
▲손원갑69 ▲송복희78 ▲신현정91
▲심문섭65 ▲오수환72 ▲우계숙76
▲원묘희63 ▲윤영섭93 ▲윤옥진68
▲이성은68 ▲이용국65 ▲이은심82
▲이주태57 ▲이준환95 ▲임정순76
▲장용주83 ▲전수진96 ▲전용석92
▲전진희80 ▲정광호64 ▲정선화60
▲정연희82 ▲정종미80 ▲조여주81
▲채혜선86 ▲전진희80 ▲최진주85
▲최충웅63 ▲한동주74 ▲한영욱62
▲한정희85 ▲한혜경79 ▲홍순무58

◇法科大學

▲강구태84 ▲강문종70 ▲강성욱89
▲강형중89 ▲경익현61 ▲고연금91
▲고원증43 ▲고재화66 ▲구자업76
▲구충희52 ▲권건우75 ▲권순일61
▲권영일59 ▲길병위72 ▲김귀동74
▲김기형58 ▲김남수68 ▲김남진55
▲김대권74 ▲김동철61 ▲김동현71
▲김동화81 ▲김상철65 ▲김상호76
▲김성민61 ▲김수복87 ▲김수철75
▲김승희79 ▲김양남63 ▲김영태78
▲김영필57 ▲김영한66 ▲김용찬84
▲김용포65 ▲김용한63 ▲김원주57
▲김윤구51 ▲김의환85 ▲김재춘56
▲김종근87 ▲김종오78 ▲김주홍39
▲김지욱75 ▲김창국58 ▲김창환61
▲김전우81 ▲김태규49 ▲김태성90
▲김택환61 ▲김표진54 ▲김형수81
▲나만수82 ▲나풍운68 ▲남기춘83
▲노생만85 ▲동현철84 ▲문대성89
▲문동후71 ▲문성우79 ▲민병찬51
▲민석기54 ▲민유숙87 ▲박국경62
▲박기태80 ▲박두환61 ▲박병서64
▲박성원85 ▲박수복81 ▲박승준84
▲박용선58 ▲박윤해88 ▲박재운98
▲박지영41 ▲박현상80 ▲박홍우74
▲반성우59 ▲반정우91 ▲배석필62
▲백인기56 ▲백준현82 ▲부구욱74
▲서영덕61 ▲석동현83 ▲성달용64
▲손기호83 ▲손우창90 ▲손종대70
▲손주찬52 ▲송영철84 ▲송재원85
▲신민수88 ▲신수길81 ▲신인식78
▲심명수63 ▲안왕선68 ▲안원식64
▲양재식89 ▲여상조74 ▲염동희55
▲오성식52 ▲오정돈83 ▲오지철73
▲오천석80 ▲오현규92 ▲우병우88
▲유 건65 ▲유기준82 ▲유병욱83
▲유봉수55 ▲유영준52 ▲유영해46
▲유영현94 ▲유재방42 ▲유제인72
▲윤복근64 ▲윤한중69 ▲이관진58
▲이광형84 ▲이국재76 ▲이근병83
▲이근일67 ▲이대우71 ▲이대원45
▲이덕구58 ▲이덕렬53 ▲이동렬72
▲이동준82 ▲이상돈74 ▲이선지90
▲이성덕71 ▲이수영78 ▲이영구65
▲이외수67 ▲이인상57 ▲이재천56

▲이종욱63 ▲이준근58 ▲이지희66
▲이진호67 ▲이창복78 ▲이철우47
▲이정환65 ▲이춘식56 ▲이태식61
▲이하우62 ▲이형진85 ▲이희철51
▲임 경82 ▲임승균67 ▲임완규69
▲임철목59 ▲장백규82 ▲장성부64
▲전영삼79 ▲전영희64 ▲정경영83
▲정동원55 ▲정문웅61 ▲정병대82
▲정병석77 ▲정성진63 ▲정수영57
▲정영일69 ▲정용상78 ▲정용재64
▲정우영83 ▲정점식88 ▲정치근54
▲정대세72 ▲조가운64 ▲조남현61
▲조대연73 ▲조두현58 ▲조석래55
▲조우현80 ▲조원철85 ▲조정규73
▲조해근82 ▲조홍식87 ▲진병건75
▲진형근81 ▲최동식80 ▲최병덕76
▲최상관81 ▲최성정65 ▲최성근82
▲최세영64 ▲최연택80 ▲최완주81
▲최원백41 ▲최준희89 ▲태범식55
▲하광호77 ▲하창우78 ▲하철용72
▲한근우49 ▲한득추59 ▲한만수81
▲한상태61 ▲허승태77 ▲허택원57
▲황선태70 ▲황종태55 ▲황희철81

◇師範大學

▲강병록66 ▲강신복66 ▲강양희61
▲강창석71 ▲고병철65 ▲고옥순41
▲고원영63 ▲구관서77 ▲구진희88
▲권순기82 ▲권용용79 ▲금승호64
▲김경미89 ▲김경호55 ▲김남형84
▲김동운68 ▲김동찬55 ▲김명훈58
▲김봉수50 ▲김선식62 ▲김성수72
▲김성태73 ▲김순애60 ▲김시형58
▲김안신74 ▲김영숙55 ▲김영우59
▲김영찬59 ▲김옥야67 ▲김윤애58
▲김정길65 ▲김정래57 ▲김정홍61
▲김정희62 ▲김종찬95 ▲김진선67
▲김창걸60 ▲김창호73 ▲김창환82
▲김천식77 ▲김학수57 ▲김홍범58
▲나성환56 ▲남 석98 ▲남기병56
▲남기종54 ▲남상이86 ▲남한식55
▲노병룡60 ▲노진영99 ▲마종진56
▲문영식77 ▲문창덕42 ▲문창원56
▲민혜식56 ▲박동섭63 ▲박병래54
▲박상일50 ▲박인근63 ▲박장순57
▲박재근83 ▲박정희41 ▲박종원57
▲박지모77 ▲방재곤66 ▲서수현55
▲서윤수48 ▲서정선64 ▲성기선86
▲성백엽73 ▲성본섭66 ▲손재순73
▲손홍빈56 ▲송남순69 ▲송재희80
▲송해지60 ▲신각범58 ▲신동순53
▲신정옥65 ▲신태복55 ▲신희균64
▲신희명54 ▲심영자63 ▲안온신55
▲안주희77 ▲안채봉40 ▲양기석71
▲양원영65 ▲오건주80 ▲오세량73
▲오정호39 ▲우명미65 ▲우인섭51
▲원용견63 ▲유근찬75 ▲유문상56
▲유상주62 ▲유성렬71 ▲유준희85
▲윤덕성44 ▲윤석영68 ▲윤이중71
▲윤일성72 ▲윤재봉60 ▲윤재석75
▲이 중69 ▲아계윤57 ▲이계학62
▲이광렬61 ▲이기봉58 ▲이동욱73
▲이매기91 ▲이명수72 ▲이복환77
▲이석보57 ▲이신규63 ▲이영호60
▲이완식61 ▲이용수81 ▲이용재63
▲이윤자46 ▲이은희96 ▲이일훈53
▲이정호70 ▲이종순56 ▲이진희89
▲이흥구85 ▲이희원79 ▲이희철90
▲임광수72 ▲임창선76 ▲임혜옥39
▲임홍선57 ▲장선악40 ▲전래수56
▲전만길66 ▲전명수51 ▲전의숙72
▲정만진55 ▲정명수73 ▲정인상79
▲정일동55 ▲정태형77 ▲정희욱65
▲조영자57 ▲조윤숙60 ▲조정제57
▲조철원59 ▲주봉노59 ▲진쾌현56

▲차가원70 ▲차양로64 ▲최광렬80
▲최돈성57 ▲최병선58 ▲최종숙69
▲최종학84 ▲최대준73 ▲최현규74
▲최혁상51 ▲최혜선67 ▲최희주56
▲추성구52 ▲하상기78 ▲하영준60
▲한상규76 ▲한상순50 ▲한연수64
▲한주호56 ▲한춘배63 ▲함종규50
▲허혜경69 ▲황혜복83

◇商科大學

▲강경수61 ▲강철민57 ▲고범준39
▲고상목57 ▲공형식69 ▲곽순동65
▲권만식69 ▲권영두65 ▲권영정78
▲권오학61 ▲권현무66 ▲김광수52
▲김광안65 ▲김기영61 ▲김기준59
▲김동원73 ▲김만현56 ▲김병덕58
▲김보인56 ▲김사홍62 ▲김상은57
▲김선길52 ▲김성호61 ▲김성호71
▲김안웅71 ▲김영근55 ▲김영상48
▲김영식70 ▲김영신61 ▲김영하65
▲김용술62 ▲김원태60 ▲김유일57
▲김윤경57 ▲김이규58 ▲김자환65
▲김종창71 ▲김주복61 ▲김진건69
▲김진우63 ▲나제택57 ▲남기호67
▲남상덕73 ▲노영환59 ▲류태환54
▲문무상58 ▲문성택72 ▲박경석57
▲박기환73 ▲박대룡57 ▲박성출66
▲박승규55 ▲박정진57 ▲박정호50
▲박종달63 ▲박종태57 ▲박지건64
▲박진국71 ▲백지근56 ▲서재인70
▲서정욱65 ▲손근홍70 ▲손홍규55
▲손홍근61 ▲송재관70 ▲신종우52
▲심창순64 ▲안국진69 ▲양영환58
▲양재국58 ▲연영규58 ▲예종호58
▲오경민71 ▲오길영42 ▲오영욱48
▲오정환65 ▲우일균56 ▲우홍식51
▲원정연67 ▲유노상64 ▲유만조61
▲유방창65 ▲유승준43 ▲유창복61
▲윤가현56 ▲윤상규61 ▲이계홍59
▲이관재68 ▲이근재48 ▲이만순63
▲이석순58 ▲이성렬74 ▲이성희74
▲이세장59 ▲이승웅64 ▲이영걸65
▲이영주57 ▲이용진72 ▲이용근55
▲이원덕75 ▲이은면53 ▲이인철73
▲이재등61 ▲이재원65 ▲이재홍61
▲이정상65 ▲이종희70 ▲이창준57
▲이필원67 ▲이한선74 ▲이희준53
▲임정일66 ▲임지순43 ▲임지순72
▲임창무57 ▲장광명64 ▲장성기59
▲장세진72 ▲장인주73 ▲장현수66
▲전문준71 ▲전병창68 ▲전완식66
▲전인홍58 ▲전종환55 ▲전창기63
▲정광홍62 ▲정대서75 ▲정문모65
▲정상철66 ▲정세진57 ▲정순택44
▲정승희56 ▲정기권58 ▲정정태68
▲정종순69 ▲정주병66 ▲정진한57
▲정대욱69 ▲조남직63 ▲조동희60
▲조상희67 ▲조한석48 ▲조희원71
▲주 일57 ▲주경로65 ▲채필석63
▲최병로59 ▲최수원63 ▲최용호54
▲최익재72 ▲최정호65 ▲최행주70
▲최현기75 ▲하진수39 ▲한정준58
▲허남수66 ▲현인준69 ▲홍구희61
▲홍두표65

◇獸醫科大學

▲고주영69 ▲권순기61 ▲권순호57
▲김건호74 ▲김교형65 ▲김기원61
▲김남호94 ▲김덕원54 ▲김수창59
▲김신인63 ▲김영신59 ▲김영춘58
▲김윤수78 ▲김정근59 ▲김협수88
▲김환경53 ▲김홍수85 ▲남궁선61
▲민동수85 ▲박재용72 ▲박진일64
▲서강문86 ▲서정환54 ▲송도영91
▲신광순56 ▲신래섭60 ▲신형철86

▲안영걸⁵¹ ▲엄기선⁷⁸ ▲유한상⁸²
▲이강현⁹¹ ▲이범선⁵¹ ▲이병욱⁵¹
▲이윤희⁸⁴ ▲이은송⁸⁷ ▲이인세⁶⁶
▲이장락⁴⁹ ▲이종세⁸³ ▲이진호⁸⁸
▲이창업⁵³ ▲임봉택⁵⁹ ▲정의조⁶⁸
▲정희래⁶⁴ ▲조영선⁸² ▲조은제⁸⁴
▲지성학⁵⁷ ▲지영민⁶⁵ ▲최윤석⁵⁶
▲한인식⁶⁸ ▲홍순국⁵⁹ ▲황명수⁷⁸
▲황우석⁷⁷

◆藥學大學

▲강삼식⁶⁹ ▲강희식⁶⁵ ▲고광호⁶⁹
▲권영환⁵⁸ ▲권현덕⁶¹ ▲김건식⁴⁹
▲김광일⁴⁹ ▲김규형⁵⁷ ▲김근숙⁷¹
▲김만국⁵⁰ ▲김만수⁹⁹ ▲김병채⁸⁴
▲김석기⁵³ ▲김영광⁷⁶ ▲김영환⁷¹
▲김학균⁵⁵ ▲박상은⁹⁸ ▲박원상⁶⁶
▲박정욱⁸⁷ ▲박창서⁷⁴ ▲백승원⁶⁵
▲송현준⁸³ ▲신성목⁷⁴ ▲심은숙⁵⁵
▲안병욱⁷⁶ ▲오전권⁷⁶ ▲우숙희⁵⁴
▲이강영⁶¹ ▲이경수⁷⁰ ▲이성구⁷⁷
▲이승진⁹⁹ ▲이재욱⁴⁸ ▲이준엽⁹⁹
▲이진수⁶⁶ ▲이형우⁶⁰ ▲이훈자⁶⁰
▲정 영⁸¹ ▲정만익⁵¹ ▲정세영⁸⁰
▲조병현⁵⁵ ▲조용한⁷⁷ ▲조유섭⁷²
▲조현민⁹⁸ ▲지상구⁵⁸ ▲채병호⁶⁰
▲최명자⁶⁶ ▲최수일⁶⁵ ▲한대석⁵¹
▲홍순언⁶⁶ ▲홍승철⁵⁷ ▲황영욱⁶¹

◆音樂大學

▲강중수⁶⁹ ▲곽은영⁸⁶ ▲김명희⁶⁸
▲김미경⁸⁵ ▲김선희⁷¹ ▲김선희⁸⁵
▲김수혜⁹⁴ ▲김인완⁶¹ ▲김현희⁸⁵
▲김혜자⁶⁶ ▲김홍승⁷⁷ ▲김홍인⁶⁹
▲남윤경⁹⁶ ▲노정희⁹⁰ ▲류정희⁵⁹
▲민의식⁸⁶ ▲박영자⁵⁹ ▲박정자⁶⁴
▲배덕윤⁵³ ▲변종혁⁸⁵ ▲신은숙⁹⁰
▲신혜주⁸⁰ ▲안현정⁹⁷ ▲염보영⁷⁶
▲오진욱⁷² ▲우시현⁸⁹ ▲원유란⁷⁵
▲유봉우⁷⁸ ▲윤기숙⁸⁶ ▲윤순미⁷⁰
▲이기원⁴⁹ ▲이동남⁷⁰ ▲이명희⁷²
▲이방숙⁶⁵ ▲이상룡⁶⁶ ▲이상룡⁶⁶
▲이숙영⁸⁴ ▲이영완⁸⁴ ▲이은호⁷²
▲이종석⁷⁶ ▲이주희⁹³ ▲이혜선⁷⁴
▲이훈복⁵² ▲임정선⁶¹ ▲전소영⁸⁴
▲정설주⁸⁴ ▲정은숙⁷⁴ ▲정태봉⁸⁰
▲정혜윤⁹⁶ ▲지은혜⁹¹ ▲진윤일⁸⁷
▲한혜자⁶⁵ ▲한전혜⁶⁶ ▲홍순미⁷⁵
▲홍준선⁶² ▲황순빈⁹⁹ ▲황희영⁷⁶

◆醫科大學

▲강길진⁶⁷ ▲강왕직⁵¹ ▲강일태⁸⁰
▲강진국⁶³ ▲강진영⁷³ ▲고원섭⁸⁴
▲구재철⁸⁴ ▲기정일⁶⁵ ▲김갑득⁷⁶
▲김동규⁷⁸ ▲김민석⁹⁶ ▲김민아⁹⁰
▲김병수⁶¹ ▲김병일⁸¹ ▲김봉석⁸⁷
▲김선태⁷³ ▲김성심⁵⁷ ▲김수길⁶⁶
▲김영주⁸⁴ ▲김용태⁸⁸ ▲김우섭⁶²
▲김우영⁴⁹ ▲김인호⁷⁸ ▲김정룡⁶⁶
▲김종숙⁸³ ▲김지훈⁹⁹ ▲김철웅⁷⁸
▲남상룡⁷⁹ ▲명나혜⁸⁸ ▲문희범⁷⁸
▲박영석⁸⁶ ▲박용원⁸³ ▲박웅재⁴⁴
▲박인애⁸¹ ▲박중수⁷⁶ ▲박현승⁸⁴
▲방덕환⁵⁹ ▲방지현⁸⁹ ▲변영찬⁸³
▲서유현⁷³ ▲석상복⁷⁶ ▲손봉기⁷³
▲송운영⁶¹ ▲신기식⁸⁵ ▲신현철⁵²
▲심웅석⁶⁵ ▲안병완⁷⁶ ▲안윤욱⁷²
▲양석진⁸⁵ ▲양원용⁷⁵ ▲오명돈⁸³
▲육홍남⁶⁰ ▲원정연⁷⁷ ▲위원량⁸⁰
▲유 준⁴¹ ▲유왕성⁸¹ ▲유윤정⁷⁷
▲유재호⁸⁵ ▲유종근⁷⁷ ▲윤보현⁷⁹
▲이갑로⁷¹ ▲이강욱⁸⁹ ▲이계희⁸³
▲이광진⁶⁸ ▲이규연⁹⁹ ▲이덕수⁶¹
▲이동규⁸³ ▲이동철⁸⁴ ▲이명철⁸³
▲이무훈⁸¹ ▲이상립⁵⁰ ▲이세종⁵⁶

▲이수일⁷⁵ ▲이승남⁸² ▲이영우⁶⁰
▲이용규⁶⁰ ▲이용진⁵⁰ ▲이원기⁸⁵
▲이윤성⁷⁷ ▲이윤호⁷⁴ ▲이윤모⁷⁹
▲이인섭⁷⁷ ▲이인수⁴⁸ ▲이인영⁵⁷
▲이종복⁸⁵ ▲이종일⁵⁴ ▲이주원⁴⁸
▲이중명⁷⁹ ▲임승운⁸⁰ ▲임재준⁵⁶
▲임현명⁶⁰ ▲임형석⁸⁷ ▲장성호⁷²
▲장우현⁶⁶ ▲장운삼⁴⁹ ▲장청순⁶⁰
▲전예근⁶³ ▲전종관⁸⁴ ▲전종희⁵³
▲전해원⁹⁰ ▲전호성⁸² ▲정 민⁸¹
▲정두용⁷⁹ ▲정제일⁵⁹ ▲정진상⁶¹
▲정진욱⁸⁵ ▲정희국⁸⁴ ▲조성환⁵⁶
▲차철환⁵³ ▲채인호⁸⁸ ▲최동섭⁷⁵
▲최동철⁶⁴ ▲최승순⁸⁰ ▲최윤식⁶⁹
▲최진상⁸⁰ ▲탁용준⁸¹ ▲한격부⁴¹
▲한정수⁷⁷ ▲함돈일⁸⁸ ▲황준식⁵²
▲황필규⁹⁰

◆齒科大學

▲강수만⁸⁹ ▲강영작⁷³ ▲고영식⁷⁵
▲고홍섭⁸⁸ ▲곽난희⁸⁸ ▲곽현희⁷⁴
▲구본석⁶⁴ ▲권오임⁷⁶ ▲권혁춘⁶³
▲김각근⁷⁸ ▲김광현⁵⁵ ▲김광환⁷⁶
▲김기홍⁸¹ ▲김명기⁷⁶ ▲김명동⁶⁷
▲김병석⁸⁵ ▲김승남⁹⁶ ▲김시웅⁸⁶
▲김연만⁵⁹ ▲김영구⁷¹ ▲김용남⁷⁴
▲김용진⁸¹ ▲김종배⁶² ▲김채종⁷⁴
▲류경희⁷⁵ ▲류홍렬⁸³ ▲박경욱⁷³
▲박경정⁷⁵ ▲박계양⁸⁹ ▲박기호⁵⁸
▲박덕상⁷⁰ ▲박상복⁷⁹ ▲박연천⁷⁹
▲백승동⁸⁴ ▲백승진⁸¹ ▲백정화⁹⁰
▲사명희⁸⁹ ▲서병무⁸⁸ ▲서진관⁵⁷
▲석창인⁸⁷ ▲신동인⁸³ ▲신문창⁸⁷
▲안경민⁸³ ▲안상훈⁷⁶ ▲안희용⁸⁷
▲양철호⁹¹ ▲엄인웅⁸⁴ ▲오근성⁵⁰
▲오목훈⁸⁸ ▲용호택⁷³ ▲유남순⁷⁴
▲윤철민⁸⁸ ▲이상대⁷⁴ ▲이순규⁷⁵
▲이승은⁸⁹ ▲이정식⁵⁵ ▲이태영⁷³
▲이현석⁸⁸ ▲장기산⁶¹ ▲장동재⁷⁹
▲장영일⁷⁰ ▲장은식⁹³ ▲정관서⁸⁵
▲정광조⁸⁹ ▲조일제⁸³ ▲차만희⁶¹
▲차봉진⁸¹ ▲천옥경⁸¹ ▲천옥진⁸⁶
▲최기재⁶⁴ ▲최상윤⁸⁶ ▲최영희⁶²
▲최종석⁸² ▲한세현⁷¹ ▲한수부⁶⁷
▲함병도⁸¹ ▲허만욱⁶² ▲허준구⁷²
▲홍성익⁶¹ ▲홍현주⁸⁸ ▲황영재⁸³
▲황치일⁸³

◆大學院

▲김동선⁵⁹ ▲김상균⁹⁸ ▲김진수⁸⁵
▲박경채⁸² ▲박계영⁶⁹ ▲박길수⁶¹
▲송석훈⁷⁸ ▲안현진⁷³ ▲염시창⁹¹
▲유봉노⁵³ ▲유형중⁸⁶ ▲윤기철⁸⁶
▲이상욱⁸⁴ ▲이윤호⁷⁷ ▲이정주⁴⁹
▲이정채⁸⁶ ▲이주성⁶⁵ ▲임경순⁶¹
▲장병수⁹⁶ ▲정병희⁵² ▲조재연⁸²
▲조한욱⁶¹ ▲주낙선⁷⁸ ▲최원희⁸⁵
▲한강섭⁸⁶ ▲한정호⁸²

◆經營大學院

▲송효순⁶⁷ ▲박재범⁹⁴ ▲원진영⁹⁰
▲장재일⁹³

◆教育大學院

▲김창걸⁷⁰ ▲오철진⁷³ ▲이명복⁷³
▲장석민⁷²

◆保健大學院

▲기윤호⁷⁷ ▲김덕성⁷³ ▲김봉재⁹⁷
▲김상욱⁹⁹ ▲김영웅⁷⁷ ▲김좌상⁶⁰
▲박전봉⁷⁴ ▲서광석⁸¹ ▲송경섭⁷¹
▲신학균⁶¹ ▲오병근⁹⁰ ▲이승진⁹³
▲정 환⁸³ ▲정정근⁹⁰ ▲정치경⁶⁶
▲한돈희⁸⁵ ▲한서경⁶⁷ ▲한인규⁹⁹

◆新聞大學院

▲박용수⁷⁷ ▲송경섭⁷⁴ ▲엄정식⁷¹

◆行政大學院

▲김공환⁶⁸ ▲김길조⁶⁴ ▲김동호⁷⁰
▲김주섭⁷⁷ ▲노일숙⁸⁵ ▲박재석⁷³
▲박찬도⁶⁶ ▲반금환⁷⁰ ▲이서봉⁶⁴
▲이승렬⁷³ ▲장준규⁶⁷ ▲최상선⁶³
▲최종술⁷⁵ ▲허범도⁷⁶

◆環境大學院

▲권용수⁷⁶ ▲김경철⁸⁸ ▲김기욱⁷³
▲김삼철⁹³ ▲박상락⁸⁸ ▲신종호⁸³
▲윤종식⁹¹ ▲이강건⁷⁸ ▲전병성⁸⁵
▲하동만⁷⁵ ▲황지현⁷⁶

◆최고경영자과정

▲강재문⁴² ▲고시목⁸ ▲고희선⁴¹
▲곽연구³⁴ ▲곽종익⁴⁷ ▲구광시³⁵
▲구기창³³ ▲권익부³⁶ ▲권혁진⁴⁷
▲김 학⁴⁰ ▲김광호⁴⁶ ▲김근수³⁸
▲김동현¹⁷ ▲김명호³² ▲김병실²
▲김병원¹ ▲김병철¹⁶ ▲김봉규²⁰
▲김성규²⁹ ▲김성득³⁴ ▲김성무⁴²
▲김성섭⁴⁷ ▲김성식⁴⁴ ▲김성인⁵⁰
▲김성택³⁹ ▲김성호²⁴ ▲김성호³²
▲김성환³⁷ ▲김소용²³ ▲김승유¹⁹
▲김시천⁴⁹ ▲김영천³⁰ ▲김영현⁵⁰
▲김우전⁷ ▲김종엽²⁸ ▲김종찬⁵
▲김주동¹² ▲김중현⁴⁹ ▲김진찬⁴³
▲김창환⁴⁴ ▲김철한³ ▲김태섭³²
▲김한선¹ ▲김희연³⁷ ▲나외수³⁸
▲노재근⁴² ▲도동환²⁶ ▲민영복⁴²
▲박달용⁴ ▲박동수⁵⁰ ▲박부일³⁹
▲박상근²⁸ ▲박수남³³ ▲박수웅³⁹
▲박영대¹ ▲박영신⁴⁷ ▲박원규⁵⁰
▲박인철⁴³ ▲박정재¹⁷ ▲박종국⁴⁴
▲박종일⁴⁴ ▲박종형⁹ ▲박종훈³⁴
▲박진국⁴⁹ ▲박형주¹¹ ▲방상우³¹
▲배호원⁵⁰ ▲백문현²⁵ ▲변규섭³
▲변종희¹⁷ ▲서강우³ ▲서진희⁶
▲손병익²⁴ ▲송갑조⁵⁰ ▲송병규²¹
▲송병순⁹ ▲송병진⁴⁴ ▲신 정³³
▲신성우³² ▲신용무²⁶ ▲신정택⁴⁸
▲안용태⁴² ▲안용팔⁴⁶ ▲양철형⁴⁷
▲양희문³⁹ ▲여상빈¹⁶ ▲오형근⁴⁸
▲우국일⁸ ▲우상우¹⁸ ▲우정옥³⁷
▲원정희⁴⁹ ▲유경열³¹ ▲유병운²³
▲유시범⁴⁸ ▲유시수²⁵ ▲유재열³⁵
▲유진석³² ▲윤석홍²³ ▲이경수²⁹
▲이경호⁴⁴ ▲이기열¹⁰ ▲이내훈²⁵
▲이대희²⁰ ▲이병대⁴⁷ ▲이병문³⁵
▲이성섭⁴⁶ ▲이승배³⁷ ▲이영태³⁵
▲이영희³⁰ ▲이원구⁵⁰ ▲이원호⁴³
▲이윤근² ▲이재규⁴⁹ ▲이재우⁴⁹
▲이재환⁴⁸ ▲이정식¹³ ▲이정완¹⁹
▲이정훈³⁸ ▲이종호²⁷ ▲이종효²⁷
▲이태섭⁵ ▲이호수³⁵ ▲이화일¹³
▲장호근¹⁶ ▲전경두²³ ▲전현찬⁴⁴
▲정기택³¹ ▲정만우⁵⁰ ▲정병철⁵⁰
▲정석현⁴⁴ ▲정영무⁴⁷ ▲정우현⁴⁶
▲정필영¹⁸ ▲정환진⁴⁷ ▲정희병⁴⁵
▲조내벽³¹ ▲조은상⁴⁵ ▲조재돈⁴⁶
▲조한춘² ▲지종우⁶ ▲차석용³⁷
▲최병택⁶ ▲최상득¹⁷ ▲최영철²⁰
▲최왕언²³ ▲최재선⁹ ▲최종원¹⁶
▲최호령⁴⁹ ▲최화길³⁴ ▲최희종⁴²
▲표마선⁴⁹ ▲하정길⁶ ▲하홍태¹¹
▲홍병래³⁸ ▲황 영³⁹ ▲황경노¹¹
▲황병주¹⁵

◆고급금융과정

▲강신학¹¹ ▲고팔만¹¹ ▲국재환¹⁵

▲김광섭²⁰ ▲김광호²³ ▲김상희⁴
▲김승길¹⁰ ▲김원삼¹⁵ ▲김일수¹⁴
▲김장환³ ▲김종훈¹⁵ ▲김진구¹⁸
▲김학문³ ▲김형우⁸ ▲김혜정²⁴
▲남근석²³ ▲마재관²² ▲박상홍²³
▲박수보²⁴ ▲박영운⁵ ▲박인서¹²
▲박정준¹⁸ ▲소병규¹⁹ ▲신현준¹⁸
▲신현필¹³ ▲양 명⁹ ▲엄우식²⁴
▲오 현⁵ ▲유각목⁵ ▲유갑준¹⁶
▲유춘중¹⁴ ▲윤강영¹⁴ ▲윤기호¹⁸
▲윤병철³ ▲이동훈²⁰ ▲이문기¹⁶
▲이상원¹⁹ ▲이승규¹² ▲이영삼⁵
▲이옥수¹⁵ ▲이자실⁵ ▲이장호²⁴
▲이주연¹⁹ ▲이중기⁵ ▲이창범²²
▲이충언¹⁴ ▲이해규¹² ▲이현희¹⁵
▲장용현¹³ ▲장일재³ ▲정상렬²²
▲조종제¹⁴ ▲차정웅¹⁸ ▲최용길²²
▲최재동²⁰ ▲최창식¹¹ ▲황수천⁹

◆국가정책과정

▲강경보²⁰ ▲고세일³² ▲권도중⁴⁹
▲권영진⁴² ▲권정신² ▲김광수⁴¹
▲김기영⁴⁹ ▲김도연⁶ ▲김복득⁴⁵
▲김수중⁵ ▲김순배⁴⁶ ▲김시원⁴⁴
▲김영준⁵¹ ▲김영호³⁵ ▲김의준⁴⁵
▲김종승²⁶ ▲김종환⁴⁴ ▲김진섭³⁸
▲김충한¹⁸ ▲김철환⁴⁶ ▲김한규²⁰
▲김행복²⁷ ▲김현수³⁰ ▲김형희³⁴
▲노정기³⁶ ▲문인갑²² ▲박상만⁴⁸
▲박상호¹ ▲박성국⁶¹ ▲송선근⁴⁹
▲신상훈⁴⁷ ▲신주현¹⁵ ▲유갑중²⁴
▲유근환¹³ ▲유병국³⁰ ▲유영우³⁵
▲윤정식⁴¹ ▲윤치오⁵ ▲이관범²⁰
▲이광래⁵⁰ ▲이규식⁴⁴ ▲이문기⁴⁴
▲이상영⁴⁰ ▲이영기²⁷ ▲이영훈⁵¹
▲이점우⁴⁰ ▲이종보⁴¹ ▲이필우³³
▲이흥식²³ ▲장기철³³ ▲전재욱²⁴
▲전형일¹² ▲정인조⁴⁸ ▲조남조¹⁵
▲조성두⁴⁰ ▲조영원⁵¹ ▲지창훈⁴
▲차기문⁵⁰ ▲최만진³⁴ ▲최순현³²
▲최홍열⁴⁹ ▲황상구⁴⁵ ▲황의철⁵

◆고급금융과정

▲강신학¹¹ ▲고팔만¹¹ ▲국재환¹⁵

▲김동환⁴ ▲남정복⁶ ▲노치선¹⁶
▲박길태¹¹ ▲박순희¹⁶ ▲박정훈¹⁵
▲박준명¹² ▲박현철¹⁰ ▲변상봉¹
▲이성희⁶ ▲이창호¹⁰ ▲장재규⁵
▲정문호³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대기⁴ ▲강명오¹ ▲공창두³
▲곽호근⁷ ▲권순익⁵ ▲김경태⁷
▲김곤섭¹ ▲김명섭³ ▲김문희¹
▲김용국⁷ ▲김용진¹ ▲김환룡⁷
▲박경준⁷ ▲박문기⁶ ▲배성준³
▲선동우⁴ ▲손일근³ ▲송오섭⁵
▲신광현⁷ ▲신형순⁵ ▲안성환¹
▲오득환¹ ▲이영배⁶ ▲이용성⁴
▲이재배³ ▲장신현³ ▲전서구⁷
▲정태근⁵ ▲조성구⁷ ▲조성철⁵
▲최 영⁵ ▲최재덕⁶ ▲한길호⁴
▲홍기만³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성수² ▲김정모⁴ ▲남영주⁵
▲박수환² ▲박준현⁵ ▲오성진⁴
▲윤 건⁴ ▲이재창⁴ ▲이희조⁵
▲임영식⁵ ▲장태복⁴ ▲정병재⁵
▲정평화⁶ ▲조상채³ ▲조주호⁵

◆가정간호수습과정

▲박준애⁴ ▲정영자³ ▲허정희⁵

◆보건의료정책과정

▲강명자³ ▲강보영¹ ▲권부옥¹
▲김동혁⁷ ▲김진돈⁴ ▲김진문²
▲서원영⁷ ▲손숙영² ▲안호원⁶
▲유승렬⁷ ▲윤원진⁶ ▲이공우⁵
▲이장생⁶ ▲이태영¹ ▲임일규¹
▲전영숙⁵ ▲정건작³

◆해양정책최고과정

▲김명기¹ ▲김일선¹ ▲신석훈¹

합계 : 65,200,000원
통계 : 84,923,760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1년 3월 발급 회원명단)

개 인

◆人文大學

▲김상운⁹³ ▲문경훈⁹⁶

◆社會科學大學

▲박종구⁸⁰ ▲이정운⁹⁵

◆自然科學大學

▲황청연⁹⁹

◆工科大學

▲김준홍⁹⁸ ▲김홍규⁹⁵ ▲박도환⁹⁹
▲박병기⁹⁰ ▲박종호⁹⁴ ▲신희범⁷⁹
▲정우현⁸⁸ ▲정종욱⁹⁰

◆農科大學

▲김규량⁹² ▲김대우⁸⁹ ▲박근배⁷⁹
▲진대경⁸⁹ ▲채 일⁹⁷

◆美術大學

▲남 철⁶²

◆法科大學

▲송준재⁶⁸

◆師範大學

▲성상길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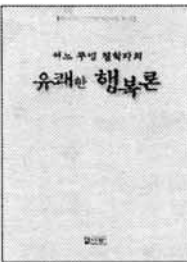
◆獸醫科大學

문화
단신

新刊

■ 어느 무명 철학자의
유쾌한 행복론

—全始崙 著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도미, 미국 켄터키주의 베리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故

全始崙(50년 工大入) 동문의 수필집.

全동문은 이 책을 통해 행복이란 어떻게 만들면 배불리 맛있게 먹고 죽을 수 있는 음식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썩썩하고 유쾌하게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았던 평범한 인간의 삶에 대한 꿈틀거리는 익살과 성실성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을 담고 있다. 全동문은 이 책의 출간을 앞두고 지난 1998년 폐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명상刊> 값 8,000원

■ 독일대학과
과학의 역사

—張水榮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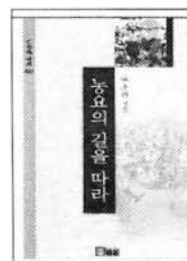
포항공대 총장을 역임한 張水榮(61년 工大卒) 교수가 독일과 독일 대학의 역사, 독일 수

학자들의 계보 등을 담은 책을 펴냈다.

동·서독 통일이후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로서 부상하는 독일 사회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놓았다. <학문사刊> 값 18,000원

■ 농요의 길을 따라

—李素羅 著



문화재청 전문위원인 李素羅(68년 法大卒·배재대 겸임교수) 동문이 농요의 길을 따라 그 취재 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수필 형태로 엮어놓은 책.

농요와의 인연, 농요와 민요, 모노래의 길, 일본가서 모노래 찾던 이야기, 중국소수민족의 사랑노래, 함창의 오장소리 취재기, 산악지곡과 진도아리랑,

용알뜨기, 귀주성 방문기 등 33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밀알刊> 값 6,500원

■ 뉴스저널리즘 실무특강

—安炳燦 著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安炳燦(75년 新大院卒·本報 論說委員) 교수가 언론학을 강의하면서 수행한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현장과 저널리즘 이론을 접목한 책을 펴냈다.

「보도의 카테고리」 「보도준칙과 언론인 의식」 「취재체계의 문제점 진단」 「4·11총선 오보방송」 「4·13총선 및 11·8 미국대통령 선거 오보방송」 「신문보도와 신세대 의식」 「한국 언론개혁 방법론」 「한·중 관계와 언론의 역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텍스트」 등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출판 양지刊> 값 13,000원

■ 다시 볼 수 없어

더욱 그림자

—柳子孝 著



1968년 「신아일보」 신춘문에 시부 입선 및 1972년 「시조문학」으로 문단에 등단한 SBS 柳子孝(75년 師大卒) 라디오본부장이 펴낸 에세이.

柳동문이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1부, 여행과 책 그리고 경험에 의해 스치고 간편린들을 모은 2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국내외의 상황들에 대한 柳동문의 소견을 담은 3부로 구성해 총 60편의 글을 주제별로 나눠 실었다. <모아드림刊> 값 8,000원

■ 프랑스어 숙어연구

—金眞秀 著



서경대 불어과 金眞秀(85년 大學院卒) 교수가 프랑스어 특유의 관용어와 표현을 정리한 프랑스어 숙어 학습서를 펴냈다.

프랑스어의 숙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여 각 숙어마다 뜻을 풀이하고 예문을 제시하여 해석을 덧붙였다. <삼지사刊> 값 15,000원

(정리=安興燮기자)

동문의 소리

영원한 꿈을 이루며 사는 것

이집트에서 2000년이 넘는 한아리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돌처럼 굳어 있는 곡식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왔다. 만일 이 곡식을 밭에 심어 2천여 년 동안 번식케 했다면 60억의 전 인류를 먹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가능성이다. 모든 것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생명은 어떻게 활동하여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꿈을 통하여 동기가 부여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까치집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의 집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늘을 나는 면에서는 사람은 새보다 못하나 「날고 싶다」

는 꿈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었다. 나라를 일으키고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꿈은 서울대학교를 만들었다. 모교 동문들 속에서 잉태된 많은 꿈은 그 동안 나라 발전과 인류사에 큰 역할을 했다.

꿈에도 종류가 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땅에 속한 꿈이 있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꿈이 있다. 수학에서 괄호라는 기호 안이 「+」라 하더라도 괄호 밖이 「-」이면 「-」가 되어버리듯 모든 꿈은 죽음으로 끝나 버린다. 그러므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원한 꿈을 이루며



金漢植(74년 音大卒)
한사랑선교회 대표

살 수 있는 생명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일서 5장 11~12절).

모교를 이 생명의 꿈이 충만한 동산으로 만들자. 그리고 민족과 세계에 빛으로 나아가게 하자.

창업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필자는 소위 잘 나간다는 벤처기업에서 CFO를 맡은 지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알음알음으로 찾아와 투자를 요청하고, 창업을 상담한 선후배가 수십 명은 되는 것으로 기억된다. 그 동안 여러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대개의 경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첫째는 성공을 확신하는 확신형이다. 이 분들은 대개 연구소 출신이 많은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정통할 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제품개발에 대한 준비가 치밀하다. 반면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대비가 소홀한 면이 있고, 창업환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수요처를 미리 확보하

고 창업을 하는 담보형이 있다. 이 분들은 대개 큰 기업이나 정부 부처에서 관련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경우인데, 개발과 생산만 되면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체로 전직에서 일했던 노력과 경험을 창업 자산화 하는 분들로서, 지나치게 환경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창업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는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준비하는, 손아랫사람의 참여 권유를 받고 창업을 하는 동거형이 있다. 이러한 분들은 시간을 두고 자신이 참여해도 되는 사업인지를 숙고하다가 결론을 내리게 되며, 자신과 손아랫사람과의 역할정립에 많은 고민을 한다. 대개의 경우 양자가 뚜렷하게 전문성이 다를 경우에만 창업을 하게 된다.



趙永國(88년 經營大卒)
(주)우리기술 이사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첫 번째 유형이 성공확률은 가장 낮지만 소위 말하는 대박의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우는 소규모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명맥만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많고, 세 번째 유형의 창업은 대개의 경우, 한사람이 갖지 못한 경험과 재능을 다른 쪽이 보완하게 되고, 자칫 주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대중 골프장의 진정한 의미

요새 골프에 대한 인기는 대단하다. 「운동」하러 간다 하면 으레 골프를 생각하게 된다. 요 몇 년 동안 자랑스러운 박세리 선수의 공으로 IMF를 딛고 대중 스포츠로 일어설 수 있었다. 현재 골프 인구는 통계적인 수치를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핸드폰 보급률만큼이나 거침없이 늘어간다. 연습장을 봐도 3~4층 되는 타석이 평일 낮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속에서도 일반 대중이 연습장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비용 때문에 힘들다. 내 돈 내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골프장이 몇 개나 될까?

1백40여 개의 개장된 골프장 중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골프장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은 정규 골프장과는 그린과 가격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 현재 있는 대중 골프장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거기 갈 바에야 조금 더 보태서 정규골프장 가지 하는 식이 된다. 국토의 70%가 산지인데 현행법으로, 앞으로 임야에 골프장 만드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니 늘어나는 골프 인구 수요를 어디서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국토 중 쓰지 않는 폐염전, 매립지, 토취장, 이용객이 없는 한강고수부지 등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 땅이라면 골프장 만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그



任相信(97년 環大院卒)
임골프디자인 기술사사무소
디자인부 팀장

린피의 가격이 싸질 수 있으니 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대중 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운동이란 골프 발생의 원개념만 드러낼 수 있다면 대중이 원하는, 진정으로 훌륭한 대중 골프장이 되지 않을까?